

정책연구 2017-23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 현안

Analysis of Women in Single-Person Households

주 혜 진

연구책임

- 주혜진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연구지원

- 오윤희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 장다혜 / 도시경영연구실 조사원

정책연구 2017-23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 현안

발행인 박재묵

발행일 2017년 9월 30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대전문화사 TEL 042-252-7208 FAX 042-255-72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자치특별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대전지역 1인가구는 169,391가구로 전체 가구의 29.1%를 차지하며, 2045년에는 대전지역 1인가구 비율이 39.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전지역 1인가구의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현황 분석과 이에 근거한 정책 현안 발굴이 요구됨

■ 연구 방법

-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지원 사례 검토
-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집계결과와 20% 표본집계결과, 2015년과 2016년 실시된 「대전시 사회조사」 원시자료 재분석
- 전문가 및 1인가구주 집담회

■ 연구결과

□ 대전지역 1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 대전시 거주 1인가구는 총 16만9천391 가구로, 이 중 여성 1인가구는 8만2천278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남성 1인가구가 여성보다 많음
- 대전시 전체 1인가구 중 20대 이하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5%로, 전국 20대 이하 1인가구 비율인 18.2%보다는 높고, 세종의 1인가구 비율 35.3%보다는 적으나, 부산 17.6%, 대구 17.2%, 인천 14%, 광주 21.2%보다 크게 높음
- 1인가구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구,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중구(52.9%),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곳은 유성구
- 1인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행정동 중 여성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온천2동(35.4세)이며, 그 다음으로 낮은 곳은 자양동(37.6세)

□ 행정동에 따른 1인가구 거주 분포

1인가구 비율	동 수	행정동
50% 이상	6	자양동(66.5%), 용운동, 오정동, 온천1동, 월평1동, 온천2동
40 ~ 49%	5	괴정동, 도마1동, 중앙동, 은행선화동, 판암2동
30 ~ 39%	18	대화동, 목상동, 가양2동, 유천1동, 흥도동, 월평2동, 중리동, 가양1동, 용두동, 문창동, 대흥동, 갈마1동, 도마2동, 대사동, 용전동, 탄방동, 갈마2동, 용문동
20 ~ 29%	31	비래동, 신인동, 원신흥동, 관저1동, 가장동, 대청동, 법2동, 회덕동, 산성동, 전민동, 노은1동, 유천2동, 구죽동, 석교동, 대동, 오류동, 진잠동, 덕암동, 성남동, 문화2동, 신탄진동, 복수동, 삼성동, 신성동, 기성동, 판암1동, 변동, 만년동, 중촌동, 부사동, 법1동
10 ~ 19%	18	태평2동, 둔산1동, 송촌동, 태평1동, 내동, 목동, 정림동, 가수원동, 산내동, 문화1동, 노은3동, 효동, 관평동, 노은2동, 관저2동, 석봉동, 둔산2동, 둔산3동
10% 미만	1	월평3동

주: 1) 행정동 기준

2) 1인가구 비중=(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 대전지역 1인가구의 사회문화적 특성

- 남녀 모두 1인가구 중 기혼의 비율이 줄어든데 비해, 사별과 이혼 비율은 증가한 특징을 보임
- 여성 1인가구는 낮은 주거환경만족도 및 소득만족도, 불안한 고용, 낮은 행복감, 높은 우울감과 범죄피해 불안감, 운동하지 않으나 이웃과 소통은 좋은 편이고 앞으로도 계속 1인가구로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특징을 보임
-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1인가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며, 여성은 ‘안전한 생활’을, 남성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음

□ 여성 1인가구 군집분석 결과-집단의 유형화와 정책 제안

군집유형	주요 특징과 정책 제안
사무직 미혼 여성 1인가구 (군집유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에 종사하는 30대 미혼 • 대졸이며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여가생활도 적극적인 편 • 연립/다세대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고, 이웃과의 소통엔 소극적인 편 • 서구 갈마2동, 유성구 온천2동, 대덕구 송촌동 등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심 주택, 테마가 있는 공동 부엌 운영
노령의 주부 여성 1인가구 (군집유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별하고 직업이 없는 60대 주부 • 학력이 낮고, 소득도 적은 편이며 여가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임 • 자기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과 삶의 질이 염려되나 이웃과의 소통은 가장 활발함 • 중구 산성동, 대덕구 법1동, 동구 관암2동 등 • 세대통합형 세어하우스, 1인가구 무료 간병인 서비스 등
돌아온 중년 여성 1인가구 (군집유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4,50대 • 고졸의 판매업 종사자이며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바탕으로 여가생활도 하는 편 • 자기 소유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며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 • 동구 자양동, 중구 문화1동, 동구 용전동 등 •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꾸기, 단기 의료 지원 서비스, 여성의료생활협동조합 형성 추진과 지원
대학생 미혼 여성 1인가구 (군집유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다니는 20대 미혼 • 직업이 없고, 월 소득이 적으나 활발하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음 • 연립/다세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이웃과의 소통에는 가장 소극적임 • 유성구 온천2동, 서구 도마2동, 대덕구 중리동 등 • 취·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세어하우스, 홈방범 서비스

차 례

1장 서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절차	4
1) 문헌연구	4
2) 전문가 및 1인가구주 집담회	5
3) 연구절차	5
3. 선행연구 검토: 1인가구 연구 현황	7
4. 1인가구 지원 법률과 조례 검토	10
5. 1인가구 지원 정책 사례 검토	15
1) 해외 지원 정책 사례	15
2) 국내 지원 정책 사례	19
2장 1인가구 현황과 특성	27
1. 전국·광역시 1인가구 현황	27
2. 대전지역 1인가구 및 여성 1인가구 현황과 특성	31
1) 1인가구 규모의 변화	31
2) 행정동에 따른 1인가구 거주 분포	33
3) 연령과 혼인	40
4) 혼자 사는 이유와 필요한 사회적 지원 수요	43
5) 소득과 경제활동	52
6) 건강과 여가	58
7) 가족과 친밀한 관계	65
8) 생활안전	68
9) 이웃과 사회참여	74
3장 대전지역 1인가구의 유형	81
1. 군집분석	81

1) 분석방법	81
2) 분석대상	85
2. 군집분석 결과: 유형의 특성	89
1) 1인가구 유형과 특성	89
2) 여성 1인가구 유형과 특성	95
4장 대전시 여성 1인가구의 정책 현안	103
1. 1인가구 정책 현안 간담회 결과 분석	103
1) 간담회 개요	103
2) 간담회 결과 분석과 정책 현안	104
2. 1인가구 지원 정책 제안	107
1) 주거와 주택 부문 지원 정책	107
2) 사회적 안전망 부문 지원 정책	109
3) 공유 사회 부문 지원 정책	112
4) 여성 1인가구 군집 유형에 따른 정책 제안	117
참고문헌	119
부록	121

표 차례

[표 1-1] 1인가구 관련 연구 현황	7
[표 1-2] 독거노인·고독사 관련 조례 현황	11
[표 1-3] 광역자치단체 1인가구 지원 조례 사례	13
[표 1-4] 기초자치단체 1인가구 지원 조례	14
[표 1-5] 1인가구 국외 지원정책	16
[표 1-6] 서울시 1인가구 주거정책	19
[표 1-7] 주택공사의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	21
[표 1-8] 1인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생활안전 지원 정책	22
[표 1-9] 서울시 여성 1인가구 대상 고용 및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 관련 정책	23
[표 2-1] 전국·특·광역시 1인가구 현황	28
[표 2-2] 전국·특·광역시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29
[표 2-3] 전국·특·광역시 거처의 종류별 여성 1인가구 현황	30
[표 2-4] 대전시 일반가구 및 1인가구 변화 추이	32
[표 2-5] 대전시 1인가구 성별 현황	32
[표 2-6] 대전지역 자치구별 1인가구 규모의 변화	33
[표 2-7] 대전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행정동) 현황	33
[표 2-8]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	36
[표 2-9] 대전 1인가구 밀집지역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38
[표 2-10] 대전지역 연령대별 1인가구	41
[표 2-11]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대전시	43
[표 2-12] 혼자 사는 이유	44
[표 2-13] 1인가구 거처의 종류	44
[표 2-14] 거주지 선택 고려사항 (1순위)	46
[표 2-15] 주거환경 만족도	47
[표 2-16] 1인가구 예상 지속 기간	47
[표 2-17] 1인가구의 고충	48
[표 2-18] 1인가구 필요정책 및 마케팅 상품	49
[표 2-19] 향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 (1순위)	51

[표 2-20]	연령별·성별·경제활동상태별 1인가구 현황	53
[표 2-21]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54
[표 2-22]	월평균 가구소득	55
[표 2-23]	가계부담 지출항목 (1순위)	56
[표 2-24]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57
[표 2-25]	주로 운동하는 장소 및 평균 운동 일수와 시간	59
[표 2-26]	향후 필요한 공공시설 (1순위)	60
[표 2-27]	예술활동 관람 횟수	62
[표 2-28]	우울에 대한 동의정도	63
[표 2-29]	행복에 대한 동의정도	64
[표 2-30]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에 대한 동의정도	65
[표 2-31]	가족관계 만족도: 본인부모	66
[표 2-32]	가족관계 만족도: 형제자매	67
[표 2-33]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가족	67
[표 2-34]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운 정도	68
[표 2-35]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운 정도	69
[표 2-36]	범죄 위험에 대한 불안감	70
[표 2-37]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71
[표 2-38]	도시 안전을 위한 필요사항	72
[표 2-39]	사고 대응요령	73
[표 2-40]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	74
[표 2-41]	동네 사람들끼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 편	75
[표 2-42]	이웃 간 소통 정도	76
[표 2-43]	사회적 관계 형성과 기대감	77
[표 2-44]	1인가구 주민참여 정책활동 참여 의향	77
[표 3-1]	군집분석에 사용된 1인가구 변수	81
[표 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군집분석	85
[표 3-3]	1인가구 주요변수 특성	88
[표 3-4]	전체 1인가구 군집 유형화	91
[표 3-5]	1인가구 유형의 특성 요약	94
[표 3-6]	여성 1인가구 군집 유형화	95
[표 3-7]	여성 1인가구 집단의 특성 요약	99

[표 4-1] 1인가구 정책 현안 간담회 논의 결과 요약	104
[표 4-2] 주제별·세대통합형 세어하우스의 목적과 주요 내용	108
[표 4-3] 단기케어시스템 목적과 주요 내용	110
[표 4-4] 나홀로 푸드뱅크 주요 내용	112
[표 4-5] 우리 동네 정보 모바일앱 주요 내용	115
[표 4-6] 여성 1인가구 군집 유형에 따른 정책 제안	117
[부표 1-1]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동구	121
[부표 1-2]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중구	121
[부표 1-3]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서구	122
[부표 1-4]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유성구	122
[부표 1-5]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대덕구	123
[부표 1-6]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동구	124
[부표 1-7]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중구	125
[부표 1-8]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서구	126
[부표 1-9]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유성구	127
[부표 1-10]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대덕구	127
[부표 1-11] 대전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평균연령과 연령대별 여성인구 현황(1) ...	128
[부표 1-12] 대전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평균연령과 연령대별 여성인구 현황(2) ...	129
[부표 1-13]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1)	130
[부표 1-14]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2)	131
[부표 1-15]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3)	132
[부표 1-16]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4)	133
[부표 1-17]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 동구	134
[부표 1-18]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 중구	135
[부표 1-19]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 서구	136
[부표 1-20]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 유성구	137
[부표 1-21]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 대덕구	138
[부표 1-22] 성별·주택점유형태별 1인가구 분포	139

그림 차례

[그림 1-1] 1인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수	3
[그림 1-2] 연구절차 및 방법	6
[그림 2-1] 대전지역 1인가구 행정동 분포도	34
[그림 2-2]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 행정동 분포	37
[그림 2-3] 대전지역 행정동에 따른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분포 비교 ...	39
[그림 2-4] 대전지역 1인가구의 성별 혼인상태 분포 변화(2010, 2015) ...	42
[그림 2-5] 성별·교육상태별 1인가구 현황	52
[그림 2-6] 성별·직업별 1인가구 현황	53
[그림 2-7] 1인가구의 성별 사회활동 현황	78
[그림 3-1] 1인가구 군집 품질	90
[그림 3-2] 1인가구 군집 크기	90
[그림 3-3] 여성 1인가구 군집 품질	95
[그림 3-4] 여성 1인가구 군집 크기	95
[그림 4-1] 1인가구 정책 현안 간담회 개요	103
[그림 4-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내용	111
[그림 4-3] 서구 도마1동 생활용품 공유센터	113
[그림 4-4] 생활안전지도 모바일앱 서비스 화면	114
[그림 4-5] 우송대와 동구주민이 함께하는 Sol Green Town 캠페인	116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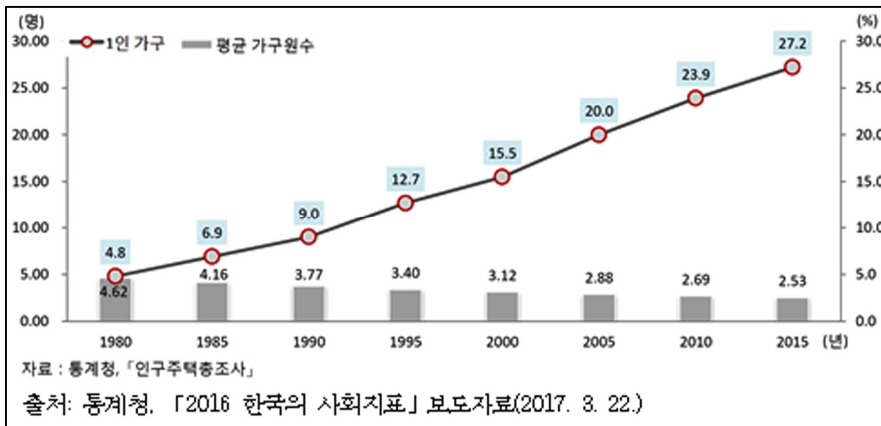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절차
3. 선행연구 검토: 1인가구 연구 현황
4. 1인가구 지원 법률과 조례 검토
5. 1인가구 지원 정책 사례 검토

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통계청이 2017년 3월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5년 1인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27.2%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23.9%에서 크게 증가함
- 가족의 규모가 장기간 축소되면서 2015년 평균 가구원 수는 2.53명으로 2010년 2.69명보다 0.16명 감소함
- 다음 [그림 1-1]은 전국의 1인가구 증가와 가구원 수의 감소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임



[그림 1-1] 1인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수

- 통계청은 ‘장래가구추계’ 보도자료를 통해 2045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1인가구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대전의 경우 2045년에는 1인가구 비율이 39.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대전지역의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2045년에는 전체의 15.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종의 경우엔 이보다 다소 높은 19.4%로 전망되고 있음

- 대전시가 발표한 「2016 대전의 사회지표」에도 1인가구 비율의 증가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임
- 대전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1%로(2016년 발표 기준) 전국(27.2%)에 비해 높고, 2010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때보다 3.8% 증가했음
-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1인가구는 그 어떤 가구형태보다 많아, 비율상 2인가구와 4인 이상 가구를 앞지르고 있음
-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대전시 전체 가구의 53.2%를 차지하는 ‘소형가구’시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인가구 증가 원인과 문제를 설명하는 연구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력과 안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대전지역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1인가구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1인가구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사회조사 설문결과를 활용해 유형화하여 대전시 1인가구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절차

1) 문헌연구

- 본 연구는 1인가구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최근 1인가구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정책과제들을 분석함
- 정부부처와 대전광역시, 통계청이 생산한 인구 및 가구 통계자료 등 1인가구의 현황을 보여주는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함
- 1인가구 현황 통계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집계결과와 20% 표본집계결과를 사용하고, 대전광역시가 매년 실시하는 「대전시 사회조사」¹⁾2015년과 2016년 원시자료를 재분석해 활용함

- 1인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 조례, 지원정책 사례 등을 검토하고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제시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근거와 사례를 검토함

2) 전문가 및 1인가구주 집담회

- 대전지역 1인가구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역 내·외 젠더 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와 함께 집담회를 개최함
- 주택·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광역시의회 의원 및 여성정책담당 공무원과 함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대전시가 추진할 수 있는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함
-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주들과 함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1인가구 관련한 정책 현안 제시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집담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은 주제별로 정리하여 정책 제안으로 제시함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 절차 및 방법은 다음의 [그림 1-2]으로 정리됨

1) 「대전시 사회조사」는 매년 5,00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가구주와 가구원을 조사하고 있음. 사회조사 원시자료에 따르면, 2015년 조사에는 11,057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 1인가구 응답자는 1,294명이고, 2016년에는 10,946명 중 1,221명이 1인가구 응답자인 것으로 나타남.

추진 단계	항목	내용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분석 ▪ 행정자료 분석 ▪ 통계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현황 및 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인가구 관련 법률 및 지원 조례 분석 ▪ 1인가구 지원 정책 사례 검토 ▪ 대전시 가족과 인구 및 1인가구 현황 통계 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p> 전문가 집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법론 및 분석 도구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 충남 등 주요 지역 정책연구기관 전문가 참여 ▪ 1인가구 현황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 수행 과정과 방법 자문 ▪ 정책 지원 사례 제안
<p style="text-align: center;">▼</p> 정책 전문가 · 청년 1인가구 집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 공유 및 정책 제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1인가구 현황과 정책적 의미 등 연구 결과 공유 ▪ 주택, 사회복지, 시의회 및 정책 담당자(공무원) 의견 수렴 ▪ 청년 1인가구주들과 연구 결과 공유 및 현안과 정책 과제 논의
<p style="text-align: center;">▼</p> 정책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7기 인구 및 가족 정책 방향과 사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요 조사결과 반영 ▪ 대전시 시행계획 추진 방향 제안 ▪ 대표 사업 제안

[그림 1-2] 연구절차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1인가구 연구 현황

- 최근 1인가구에 대한 정책연구들은 1인가구의 현황을 통계자료로 제시하는데서 나아가 연령대별 1인가구 현황을 상세분석하거나, 1인가구가 비1인가구와 달리 생활양식, 주거특성, 소비행태 등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해 제시한 연구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
- 다음 [표 1-1]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연구원 등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를 살펴보고 연구 주제와 대상을 중심으로 정리함

[표 1-1] 1인가구 관련 연구 현황

연구자	연도	공간 분석 단위	주제별					정책대상							
			주택	주거	복지	경제 활동	안전	일상생활	전체	남성	여성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변미리 외	2008	서울		○					○ (사회문화, 세대의식)	○					
이동훈	2011	서울	○							○					
이성은 외	2012	서울		○					○ (생활실태)			○	○	○	
김준형	2012	7개 도시	○			○				○					
*정경희 외	2012	-							○ (생활실태, 삶의 방식)			○	○	○	○
이용호·한정민	2013	전국				○									
배건이·정극원	2013	-	○	○	○					○					
최경은·최윤주	2013	전국							○ (여가)	○					
*황정임 외	2013	전국		○								○	○	○	
권세연·박환용	2014	서울	○	○						○					
*김중숙	2014	-		○	○	○				○					
*정경희 외	2014	-			○				○ (생활실태)			○			○

연구자	연도	공간 분석 단위	주제별					정책대상						
			주택	주거	복지	경제 활동	안전	일상생활	전체	남성	여성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
*하정화 외	2014	부산		○	○	○	○	○ (노후, 사회관계)		○	○	○	○	
*채성주	2015	충북	○	○					○					
*고보혜	2015	광주		○		○	○	○ (사회관계)			○	○	○	○
*김영정· 김연재	2016	서울						○ (여가)			○			○
*박건· 김연재	2016	서울		○				○ (여가, 생활실태, 의사소통)			○		○	
*장진희· 김연재	2016	서울		○			○	○ (여가)			○	○		
*이석환· 최조순	2016	경기	○	○		○		○ (생활실태)	○					

*: 본 표에 새롭게 추가된 연구

자료: 변미리(2015),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를 수정·보완²⁾

- 정경희 외(2012)는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연령대별 1인가구의 생활 양식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2,30대 1인가구는 사회·경제활동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활발하다는 점, 40대 이후로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힘
- 정경희 외(2012)는 특히, 모든 가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동일하나, 1인가구의 경우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더 안좋은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우울 등 정신건강은 40대 이후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우울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힘
- 정경희 외(2012)는 여성 1인가구는 ‘선호’에 의해, 남성 1인가구는 ‘환경적인 이유’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고, 세대별로 지원해야 사회지원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함

2) [표 1-1] 주제별 분류에서 ‘경제활동’은 고용현황과 형태, 직업환경, 구직여부, 경제수준, 소비양상 등을 포함하며, ‘안전’은 주거환경 안전 및 치안 등을 포함함

- 부산지역의 1인가구 생활실태와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한 하정화 외(2014)의 연구는 여성 1인가구의 주거환경 안전에 대한 욕구를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이는 도시지역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연구한 황정임 외(2013)의 연구와도 연계됨
- 송영신(2015)은 60대 이상 여성 1인가구의 생활과 어려움에 대해 연구했는데,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등과 다른 세대와의 사회관계망 형성 서비스에 대한 고려를 주장함
- 채성주(2015)와 고보혜(2016)는 각각 충북지역과 광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주거와 생활실태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했는데, 열악한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두 연구에서 1인가구의 특징이자 문제점으로 열악한 사회적 지지와 관계 형성을 지적하고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석환 외(2016)은 경기도 지역의 1인가구 거주 현황과 그 특성을 분석했는데, 산업단지밀집지역인 남부권에는 2,30대 청년층 1인가구가, 포천, 양평, 가평 등은 고령 여성이 밀집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밝힘
- 이석환 외(2016)은 1인가구는 그 외 다른 가구의 2배 이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고령 1인가구의 경우 주거비부담보다는 저소득과 사회적지지 부족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분석함
- 이와 같이 1인가구에 대한 최근 연구는 기존의 빈곤한 1인가구의 주거형태 및 환경에 대한 관심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음
- 1인가구가 경험하는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문제, 범죄의 표적이 되는 문제 등 그 외에도 노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 복지와 건강 문제,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 문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음

4. 1인 가구 지원 법률과 조례 검토

- 대전시뿐 아닌 여러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금까지 1인 가구 지원을 노인 1인 가구(독거노인)를 중심으로 한 돌봄과 안전 지원 사업 혹은 노인복지사업의 일종으로 인식해온 측면이 있음
- ‘1인가구’가 지닌 정책 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고, 생활(활동)자체가 취약한 노인계층을 제외하고는 1인가구 거주자가 지닌 특성들은 일자리, 복지 정책 등이 대상으로 하는 특성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아래 [표 1-2]는 대전지역을 비롯해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노인 독거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생활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파악하여 제시한 것임
-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과 응급안전, 건강증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본 조례를 근거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아래 [표 1-2]에 나타난 것처럼, 홀로 사는 노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조례로 구체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광역 보다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1-2] 독거노인·고독사 관련 조례 현황

제정 시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전체
계	6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경북, 전북)	99 (서울시 종로구, 대전시 동구 등)	105
2009	-	2	2
2010	-	1	1
2011	-	1	1
2012	-	2	2
2013	-	2	2
2014	-	11	11
2015	1	23	24
2016	3	31	34
2017	2	26	28

주: 본 표는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지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등 노인 1인가구지원에 관한 자치단체별 조례를 검색한 결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전시 동구가 2015년 10월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처음 제정했고, 대전광역시는 2016년 12월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대덕구(2016년 11월), 유성구(2016년 12월), 중구(2017년 7월)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
- 조례에 나타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인돌봄’, ‘응급안전돌봄’, ‘노인건강증진’, ‘사회적안전망 구축’, ‘고독사 위험자 상담 및 심리치료’,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장래지원서비스’와 ‘등록된 공동시설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음
- 노인의 고독한 삶과 그 취약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에서 분리된 ‘1인가구’라는 정책적 대상으로 고려하여 조례라는 근거를 마련한 시기는 매우 최근이며, 1인가구의 확연한 증가추세에 따른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1인가구를 정책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복지 정책과는 다른 정책의 철학적·사회적 근거가 필요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그 근거를 ‘가족의 다양성’ 혹은 ‘공동체 주의’로 본 측면이 있음
-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임
- 2016년 3월에 제정된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조례는 “다양성”이 있는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공동체성 강화하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부산과 서울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나, 시 산하 여러 기관이 어떻게 참여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제시는 서울시가 더 상세함
- 서울과 부산시의 1인가구 지원 조례 내용 비교는 다음의 [표 1-3]과 같음

[표 1-3] 광역자치단체 1인가구 지원 조례 사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일	2016.03.24	2016.11.02
목적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	-
	공동체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공동체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정의 (개념의 정의)	1인가구 1인가구 복지정책 사회적가족 사회적가족도시 공동생활가정 소셜다이닝	1인가구 - 사회적가족 사회적가족도시 공유주택 -
기본원칙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공유사회 지향 자발성·다양성이 있는 사회적 가족도시	-
시장의 책무	1인가구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마련	사회적 가족도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시민의 책무	자발적·적극적인 참여	자발적·적극적인 참여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수립·시행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환경 및 변화 실태조사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 제도개선	서울시와 동일
	기관 간 역할분담	-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서울시와 동일
지원내용	각종 주거복지사업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	공유 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1인가구 복지증진사업	-
	소셜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 1인 가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1인 가구 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	응급상황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조례의 경우 “소셜다이닝”이나 “여가 프로그램”등 1인가구 구성원이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식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과 함께 즐기는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공동체적 생활을 유도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1인가구가 위급상황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 등에 근거하여 “응급상황대처 및 범죄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서울시와 차별화된 점이라 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용산구와 금천구가 유일하게 ‘1인가구 지원’을 조례명에 포함함

[표 1-4] 기초자치단체 1인가구 지원 조례

구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기본 조례
제정일시	2017.04.07	2017.05.15
목적	경제·신체·정서·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대비 노후생활지원	공동체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
정의 (개념의 정의)	노인 홀로 사는 노인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1인가구 사회적가족 사회적가족도시 공유주택 소셜다이닝
구청장의 책무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인가구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
지원대상	65세 이상 고독사 위험자 장년층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지원내용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말뱃, 안전확인 서비스 안전 기구 및 응급호출 기구 설치 무연고자 장례서비스 지원 지역 복지 자원 연계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소셜다이닝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식품 및 건강지원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표 1-4]에 제시된 것처럼, 서울시 금천구의 1인가구 기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1인가구 지원 조례와 목적과 지원 방향 및 내용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음
- 서울시 용산구의 조례는 1인가구를 조례명에 제시했으나, 그 내용이 타 자치단체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내용과 유사하여, “사회적 가족”이나 “공동체적 공동 거주”등을 강조한 금천구의 조례와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독거가구의 고독사를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장년층까지 포함한 특징이 있음

5. 1인가구 지원 정책 사례 검토

1) 해외 지원 정책 사례

- 1인가구의 증가는 서유럽과 북미,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미 확산,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OECD(2011)가 2030까지의 1인가구 예상 증가율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증가율이 75%로 가장 높게 예상되고 있고, 한국도 43%로 예측되고 있음
- 1인가구의 현 점유율 및 앞으로의 증가가 크게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나라들은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제안, 추진하고 있음
- 변미리 외(2015), 남원석·박은철(2015), 장민선(2016) 등 기존 연구들에 나타난 여러 나라의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5]와 같음

[표 1-5] 1인가구 국외 지원정책

국가	정책	주요 내용	
영국	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직접 임대주택공급 및 임대료 통제	
	주택임대정책	• 25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교 인근지역 주택임대에 대한 주거지원	
	싱글룸 대여	• 16~2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침실을 제공하고 부엌·욕실·기타생활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거주 숙소 임대	
	주거비 보조정책	•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4세 미만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	
	공동체 주도 주택	코하우징	•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보장하면서도 입주민들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활동에 참여
		협동조합주택	• 조합원인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주택을 관리
		공동체토지신탁	• 지역사회의 필요에 근거하여 주택, 커뮤니티시설 등의 자산을 개발하며, 지역공동체가 소유통제
		공동체 자기건설주택	• 일단의 가구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함께 건축
		자조주택	•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재이용
	미국	SRO program	•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한 저소득 1인가구(노숙인, 약물중독자, 저임금 노동자 등 요보호자)의 주거공간 제공
주택바우처 제도		• 저소득 임차인의 월소득액 중 임차료가 일정비율 이상 초과할시 초과분을 보조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 건축법상 최소 주거면적을 27m ² 에서 20m ² 로 하향 조정하여 소형 아파트 및 주택 공급 활성화 촉진	
일본	공공 주택 정책	공동주택	•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욕실 및 주방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 보급
		부분임대주택	• 기존의 중대형 주택에 별도의 현관문을 마련하여 2개 이상의 독립공간으로 분리하여 부분 임대
	공공 임대 주택 공동 거주	나고야시	• 2011년부터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공동거주사업’ 시행 • 대상자는 나고야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60세 이상 1인가구 여성으로 소득제한 있음

국가	정책		주요 내용
	효고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고령화,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일부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현영 주택 2호를 학생용 셰어하우스로 활용 • 한신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효고 부흥 콜렉티브 하우스’ 공급
	UR도시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부터 지인과 동거가 가능한 ‘하우스 셰어링 제도’ 시행 • 대상자는 1인가구로서 입주자 전원을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
	오사카구 주택공급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가 친족 이외의 지인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하우스 셰어링 제도’ 운영(입주자는 2명으로 한정)
	고령자맞춤 주택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거주안정확보에 관한 법률(2001)공포, 고령자 맞춤형 주택 보급 • 고령자를 위한 주택·시설 신축, 개보수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고령자 주택 신축 취득 시 각종 세금 및 용자 혜택 제공
	소형임대주택 건축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별 조례를 통해 1인가구 거주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고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 최소화 • 도쿄 신주쿠의 경우, 1가구당 최소 전용면적 18m² 이상, 긴급연락을 위한 표지판 설치, 관리실 설치,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 등 거주자의 거주환경 및 안전기준 확보 • 자동차 주차를 위한 공지 마련, 폐기물 처리방법, 실외기 등 소음발생기 설치위치 지정 등 이웃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 고령자, 가족용 세대 설치를 명시하여 입주 배려 및 사회계층 혼합 유도
스웨덴	컬렉티브하우스 (Collective H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가사노동 해방을 목적으로 공동주방과 육아센터를 갖춘 거주자조합 소유의 집합주택으로 시작 •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규모 가구원의 소외와 고립감 해소와 정서적, 물리적 교류의 목적으로 발전
핀란드	로푸키리 (Loppuki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자율적인 공간 설계와 규칙으로 만들어진 고령자 공동생활 공간 • 스웨덴의 컬렉티브하우스를 모티브로 하여 호텔과 유사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마련하였으나, 시설 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자율적이고 협동적으로 이루어짐

국가	정책	주요 내용
독일	소형주택의 공급 및 집세 보조금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5년 제정된 본겔트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자에게 주기비용을 지원하는 집세보조금(wohngeld)제도 • 최근 1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확대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공동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이웃으로 공존하는 형태의 시설 • 단순히 주거지원이 아닌 이웃 간의 문화와 정보의 교류로 사회적 관계형성을 도모하여 1인가구가 겪는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
아일랜드	전기가스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기수당, 현금전기수당, 천연가스수당, 현금가스수당 4가지 중 하나를 신청하여 지원
	1인가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부로부터 특정급여(시각장애인 연금, 상병연금, 장애수당 또는 거동불능 보조금)를 받고 있는 66세 이상의 1인가구에게 매주 지급되는 수당(2015년 기준, 주당 9유로)

자료: 남원석·박은철(2015); 변미리 외(2015)

-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1인가구 지원 정책들을 위와 같이 살펴보면, 많은 정책들이 주거 혹은 주택 정책과 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침체된 임대주택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거노인이나 학생을 위한 셰어하우스나 콜렉티브하우징을 공급한 사례(남원석·박은철, 2015)가 있으며,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주택을, 미국 시애틀시에서는 1인가구를 겨냥한 소규모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규제와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고 있음(변미리 외, 2015)
- 1인가구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고 해서 소규모 주택 공급을 대량화하는 것보다 기존의 침체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거나,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을 위한 공동체 주도, 사회임대형 주택을 모색하는 것이 1인가구가 밀집된 외국 도시의 주거지원 정책 추세임

2) 국내 지원 정책 사례

- 국내 1인가구 지원정책은 크게 주거지원과 (특히 여성 거주자를 위한) 생활안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1인가구 주거지원정책을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음

[표 1-6] 서울시 1인가구 주거정책

정책명	사업의 주요 내용	주관기관/단체
대학생 희망하우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대상,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45m²이하)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20%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4월부터 무주택 1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평균 1,000만~1,700만원, 월 임대료 11만~23만 원 정도로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 서울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화곡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서대문구 홍은동에 공급 	
도전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등 청년창업인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에 건립한 소형 임대주택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 	
여성안심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여성가구의 안전과 생활패턴을 반영한 여성가구 맞춤형 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녹색친구들
‘더불어숲’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서 매입한 민간토지에 사회주택을 건립하여 청년 및 1인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회주택 	

자료: 서울주택공사홈페이지(<http://www.i-sh.co.kr>); 장진희 · 김연재(2016)

- ‘공공지원주택’과 유사한 개념인 ‘사회주택(social housing)’에 대한 관심이 1인가구 주거지원에 대한 관심과 함께 크게 증가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사회주택 개념에 근거한 주거공간 마련과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천현숙 외(2016)는 국가마다 다양한 정의로 사회주택을 사용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social housing은 공공주체 혹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체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주거 빈곤층에게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배분하는 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음
- 2010년 이후 1인가구의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의 주택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사회주택의 한 형태인 ‘쉐어하우스(share house)’ 등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시작됨
- 쉐어하우스란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취사, 휴식 등의 생활이 공동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 유형³⁾”을 의미함
- 2012년 12월 서울시는 ‘서울시 두레주택(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도봉구 방학동에 국내 처음으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함(쉐어하우스 WOOZOO의 블로그⁴⁾ 및 서울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홈페이지⁵⁾ 참조)
- 생활안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주택사업을 비롯해, 청년사업가를 위한 ‘도전숙’과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청년정책과 연계된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이 활발함
- LH주택공사도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을 청년층 및 근로 여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해 오고 있음

3) 서울시 보도자료 “방학동 두레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2012.12.20.)

4) <http://blog.woozoo.kr>

5) <http://citybuild.seoul.go.kr>

[표 1-7] 주택공사의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

정책명	사업의 주요 내용	주관기관/ 단체
LH청년전세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에서 전세금을 지원 • 대학 소재지 외 타 지역 출신 대학생(졸업예정자포함) 혹은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LH 주택공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자료: LH주택공사홈페이지(<http://www.lh.or.kr>); 황정임 · 김은지 · 남원석(2013)

-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대학생과 청년층(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 등), 신혼부부 등 1~2인가구를 공급의 중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음
- 청년전세임대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해 온 기존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취업준비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2016년 4월 확대 개편된 사업임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2015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집주인의 노후화된 집을 개량하여 대학생 및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한 시세(시세의 80% 수준)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집주인에게 월임대료로 생활비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1순위가 대학생과 독거노인, 2순위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청년과 노령의 1인가구를 겨냥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문제로 생활안전이 대두됨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전 관련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음

[표 1-8] 1인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생활안전 지원 정책

정책명	사업의 주요 내용	주관기관 /단체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여성이 느끼는 택배수령 과정에서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서구 등
홈방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1인가구의 안전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경찰청이 민간보안업체와 협약하여 저렴한 가격에 보안서비스 제공 	경기도, 경찰청 등

자료: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박건·김연재(2016); 장진희·김연재(2016); 고보혜(2015); 하정화·김현희·박진아(2014)

- 무인택배보관함 서비스는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활안전 지원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음
- 홈방범서비스는 서울시에서 2013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서울시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접수 종료 되었으나 경기도 등에서는 현재 계속 시행 중이며, 경찰청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와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KT텔레캅과 협력사업으로 홈시큐리티 시스템 이용료를 월 9,900원에 제공하고 있음
- 여성 1인가구 혹은 비혼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일자리 연계형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전 혹은 주거안전성 확보에 주력하는데 비해 서울시는 ‘여성 1인가구 인턴쉽’이나 ‘싱글여성 창업 지원’, ‘1인가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등 사업의 영역을 일자리와 공동체 참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음

[표 1-9] 서울시 여성 1인가구 대상 고용 및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 관련 정책

구분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 내용
고용지원	여성1인가구 인턴쉽	싱글여성	• 전산세무회계, 방과후교사 등의 직무분야에 최장 6개월까지 취 업(새일여성인턴제 일환)
	여성창업지원	싱글여성	• 여성창업플라자와 여성창업보육 센터 창업공간 배정 • 서울여성플라자 등 박스숍 우선 배정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싱글커뮤니티 지원	싱글여성	• 여성의료생활협동조합, 소셜다이 닝 등 지원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1인가구	• 공간지원사업계획 수립시 1인가 구 참여 프로그램 마련 •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공동부업 조성 및 프로그램 마련)
	1인가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1인가구	•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에 1인가구 마을 활동참여 지정 공모 시행

자료: 박건·김연재(2016)에서 재구성

- 여성 1인가구의 경제활동 지원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되나, 현재 서울시 사례는 기존의 저임금 경력단절여성 대상 사업과
큰 차이가 없음(박 건·김연재, 2016)
- 여성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령대별 특성과 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수요 파악과 그에 근거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2장

1인가구 현황과 특성

1. 전국·광역시 1인가구 현황
2. 대전지역 1인가구 및 여성 1인가구
현황과 특성

2장 1인가구 현황과 특성⁶⁾

1. 전국·광역시 1인가구 현황

-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7.2%에 달하며, 2010년 23.9%보다 증가했고, 주된 가구유형으로 나타남
- 평균 가구원수(일반가구)는 2.53명인데, 2015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2.68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 2.65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가구원수를 보임
- 대전시가 「2016 대전의 사회지표」를 통해 발표한 가구원수는 2015년 2.5명으로 2010년 2.7명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 결과에 근거한 전국 및 특·광역시 1인가구 현황은 다음의 [표 2-1]로 정리됨

6) 본 보고서는 통계청이 2015년에 실시해 2016년에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 집계 결과와 20% 표본 집계 결과를 모두 사용함. 20% 표본 집계 결과는 ‘전수 결과를 모수로 추정한’ 표본 집계 결과이기 때문에 일부 자료가 전수 집계 결과와 대치(對峙)되거나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20% 표본 집계 결과’는 주로 한 집단 내 비율을 검토할 때 활용함.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 결과는 ‘등록센서스 방식’에 의한 것으로 전통적 방식의 총조사, 행정자료(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등)와 차이가 있음. 등록센서스 방식에 의한 자료는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각종 기관과 대학의 기록 등 24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한 결과임.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천단위 자료는 백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2-1] 전국·특·광역시 1인가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5,203,440	2,610,477	2,592,963	50.2
대전	169,391	82,278	87,113	48.6
세종	21,889	10,178	11,711	46.5
부산	361,749	197,132	164,617	54.5
대구	239,517	127,337	112,180	53.2
인천	243,678	114,634	129,044	47.0
광주	163,577	80,306	83,271	49.1
울산	103,551	44,520	59,031	43.0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 대전시 거주 1인가구는 총 16만9천391 가구로, 이 중 여성 1인가구는 8만2천278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남성 1인가구가 여성보다 많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여성 1인가구는 1만178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낮은 편이며, 여성 1인가구가 남성에 비해 많이 낮은 곳은 울산광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은 부산광역시로 나타남
- 주요 광역시와 세종시의 연령대별 1인 가구와 여성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2]와 같음

[표 2-2] 전국·특·광역시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전국	전체	5,203,440	58,020	887,023	953,322	849,758	877,549	668,183	909,585
	여성	2,610,477	29,971	402,264	343,089	307,740	399,864	406,645	720,904
대전	전체	169,391	4,869	45,199	30,446	25,382	25,420	17,884	20,191
	여성	82,278	2,353	19,968	11,306	9,683	12,158	11,100	15,710
세종	전체	21,889	687	7,048	4,105	3,110	2,702	1,656	2,581
	여성	10,178	366	2,904	1,552	1,197	1,185	949	2,025
부산	전체	361,749	4,850	58,987	50,331	51,809	66,059	61,191	68,522
	여성	197,132	2,571	28,632	19,834	20,414	32,286	38,936	54,459
대구	전체	239,517	3,080	38,032	38,173	40,415	43,531	34,483	41,803
	여성	127,337	1,626	17,545	14,526	15,267	21,828	22,731	33,814
인천	전체	243,678	2,108	32,097	46,534	47,075	47,916	32,024	35,924
	여성	114,634	1,089	13,329	15,698	16,336	21,094	19,058	28,030
광주	전체	163,577	2,109	32,537	34,129	28,354	25,863	18,153	22,432
	여성	80,306	1,086	16,166	12,041	9,672	12,099	11,323	17,919
울산	전체	103,551	611	15,115	21,637	20,116	20,373	13,443	12,256
	여성	44,520	306	4,927	5,509	6,746	9,365	7,967	9,700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 대전시 전체 1인가구 중 20대 이하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5%로, 전국 20대 이하 1인가구 비율인 18.2%보다는 높고, 세종의 1인가구 비율 35.3%보다는 적으나, 부산 17.6%, 대구 17.2%, 인천 14%, 광주 21.2%보다 크게 높음
- 대전의 6,70대 이상 1인가구의 비율은 22.5%로, 전국 평균인 30.3%보다 낮고 부산의 35.9%보다 크게 낮으며, 비슷한 인구 규모를 보이는 광주의 24.8%보다 낮은 특징을 보임
-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광역 시·도가 20대에는 여성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다가 3,40대에는 줄어들고 50대 이후 차차 1인가구 중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1인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패턴을 보임

- 20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6,70대 고령의 여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데 비해(각각 60.9%, 79.3%), 3,40대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은 각각 36% 정도로 연령에 따른 여성 1인가구 비율의 차이가 있음
- 대전지역도 60대 여성 1인가구 62.1%, 70대 이상 여성 1인가구 77.8%로 여성 비율이 3,40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임(30대 37.1%, 40대 38.1%)
- 세종시도 고령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3,40대에 비해 높은 것은 유사하나, 60대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57.3%로 대전과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임
- 여성 1인가구의 주거 형태 특성을 파악해 광역시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2-3]과 같음

[표 2-3] 전국·특·광역시 거처의 종류별 여성 1인가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주택					비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전국	전체 5,203,440 여성 2,610,477	2,710,775	1,433,666	85,109	432,990	120,691	420,209
대전	전체 169,391 여성 82,278	96,352	53,130	2,108	7,114	2,785	7,902
세종	전체 21,889 여성 10,178	10,827	8,789	232	318	197	1,526
부산	전체 361,749 여성 197,132	159,515	112,316	6,044	43,598	7,840	32,436
대구	전체 239,517 여성 127,337	139,587	74,126	1,854	9,292	4,443	10,215
인천	전체 243,678 여성 114,634	82,561	78,959	3,908	50,385	4,619	23,246
광주	전체 163,577 여성 80,306	79,638	66,304	1,906	3,634	2,365	9,730
울산	전체 103,551 여성 44,520	58,815	30,296	1,523	5,380	2,533	5,004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 전국 1인가구의 약 52%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27.6%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 주택 형태별로 살펴보면, 여성 1인가구는 남성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대전지역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대전지역 1인가구의 약 57%(96,352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31.4%(53,130가구)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 세종시 1인가구의 약 49.5%(10,827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형태별로 살펴보면, 여성 1인가구의 아파트, 연립주택에 거주 비율이 대전보다 다소 낮은 특징을 보임
- 인천지역 1인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약 33.9%로 다른 도시에 비해 크게 낮으며,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각각 32.4%, 20.7%로 다른 도시와 다른 특징을 보임
- 1인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 고령 1인가구의 주거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인천과 같이 젊은 노동층 인구의 유입이 두드러지는 경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2. 대전지역 1인가구 및 여성 1인가구 현황과 특성

1) 1인가구 규모의 변화

- 2000년 인구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대전시 1인가구의 비중은 15.2%에 불과했으나, 2015년 대전시 1인가구는 일반가구의 29.1%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게 상승했음
-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된 인구총조사 때마다 1인가구의 비중은 약 5%씩 증가한 것으로 보임([표 2-4]참조)

[표 2-4] 대전시 일반가구 및 1인가구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 명)

연도	일반가구	1인가구	1인가구비중	평균가구원수
2000	413,758	62,742	15.2	3.2
2005	478,865	98,678	20.6	2.9
2010	532,643	134,938	25.3	2.7
2015	582,504	169,391	29.1	2.5

주: 1) 2000~2015년 총조사가구 전수부문

2) 일반가구는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로서,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일반가구 내 외국인을 포함함.

3) 1인가구 비중=(1인가구수/일반가구수)*100

4) 평균 가구원 수=Σ(가구원 수*가구 수)/가구 수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도별 전수집계결과

- 2015년 기준, 대전시에는 1인가구가 16만9천3백91 가구로 파악되며,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구이지만,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중구(52.9%),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곳은 유성구임

[표 2-5] 대전시 1인가구 성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대전광역시	169,391	82,278	87,113	48.6
동구	34,631	16,614	18,017	48.0
중구	24,377	12,899	11,478	52.9
서구	52,538	27,214	25,324	51.8
유성구	37,294	15,799	21,495	42.4
대덕구	20,551	9,752	10,799	47.5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에 근거하여 대전지역 자치구별 1인가구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1인가구 비율이 13.6%로 가장 낮았던 서구가 2015년에는 28.2%로 중구, 대덕구보다 높아졌음
- 동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자치구 중 가장 높은 1인가구 비율을 보이는 것에 변함이 없고, 유성구도 두 번째로 높은 1인가구 비율

순위에 변동이 없음([표 2-6]참조)

[표 2-6] 대전지역 자치구별 1인가구 규모의 변화

(단위 :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대전광역시	62,742(15.2)	98,678(20.6)	134,938(25.3)	169,391(29.1)
동구	14,415(18.4)	19,474(24.0)	27,916(29.9)	34,631(34.6)
중구	11,495(14.7)	15,313(18.1)	19,306(21.5)	24,377(25.7)
서구	19,052(13.6)	33,766(20.0)	44,614(25.0)	52,538(28.2)
유성구	7,752(16.7)	17,001(23.4)	26,555(26.8)	37,294(29.5)
대덕구	10,028(14.3)	13,124(18.3)	16,547(23.1)	20,551(27.5)

주: 1) 2000~2015년 총조사가구 전수부문

2) ()안은 1인가구 비중(1인가구수/일반가구수*1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도별 전수집계결과

2) 행정동에 따른 1인가구 거주 분포

- 대전지역 79개 행정동별로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을 산출해 거주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7]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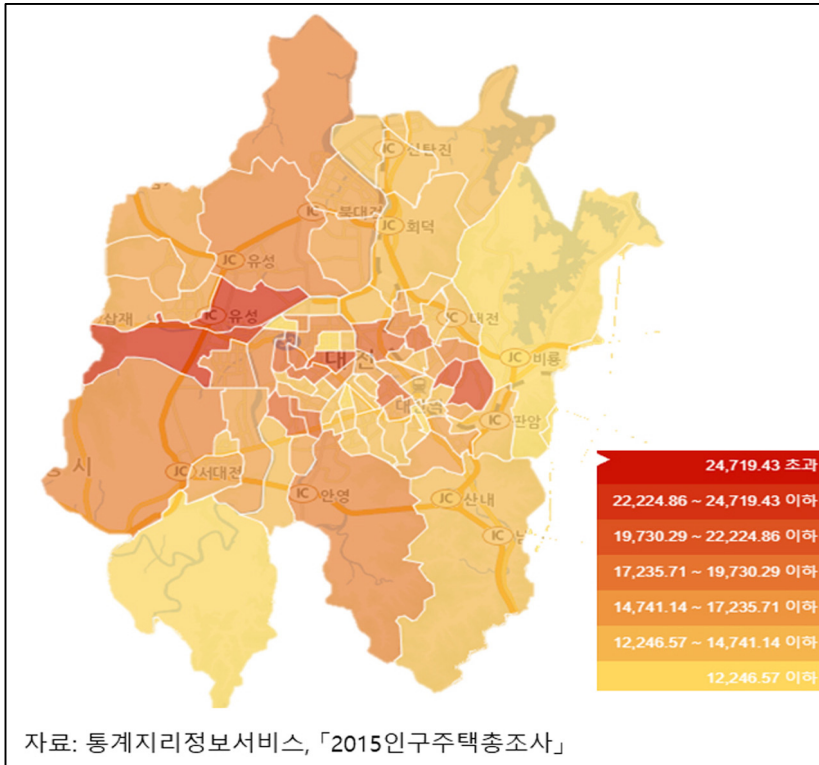
[표 2-7] 대전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행정동) 현황

구분	동수	행정동
50% 이상	6	자양동(66.5%), 용운동, 오정동, 온천1동, 월평1동, 온천2동
40 ~ 49%	5	괴정동, 도마1동, 중앙동, 은행선화동, 판암2동
30 ~ 39%	18	대화동, 목상동, 가양2동, 유천1동, 흥도동, 월평2동, 중리동, 가양1동, 용두동, 문창동, 대흥동, 갈마1동, 도마2동, 대서동, 용전동, 탄방동, 갈마2동, 용문동
20 ~ 29%	31	비래동, 신인동, 원신흥동, 관저1동, 가장동, 대청동, 법2동, 회덕동, 산성동, 전민동, 노은1동, 유천2동, 구즉동, 석교동, 대동, 오류동, 진잠동, 덕암동, 성남동, 문화2동, 신탄진동, 복수동, 삼성동, 신성동, 기성동, 관암1동, 변동, 만년동, 중촌동, 부사동, 법1동
10 ~ 19%	18	태평2동, 둔산1동, 송촌동, 태평1동, 내동, 목동, 정림동, 가수원동, 산내동, 문화1동, 노은3동, 효동, 관평동, 노은2동, 관저2동, 석봉동, 둔산2동, 둔산3동
10% 미만	1	월평3동

주: 1) 행정동 기준

2) 1인가구 비중=(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그림 2-1] 대전지역 1인가구 행정동 분포도

-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동은 동구 자양동(66.5%)인 것으로 파악되며, 동구 용운동의 1인가구 비율도 50%를 넘고 있음
- 유성구 온천1,2동도 1인가구 비중이 50%를 넘는 밀집도를 보이고 있으며, 서구 괴정동과 도마1동도 40%대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1인가구 밀집지역으로 꼽혔음
- 1인가구 밀집 행정동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대학교 인근이거나 도시철도와의 근접성을 가졌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
- 대덕구 오정동은 유일하게 대덕구 행정동 중 1인가구 비중 40%를 넘긴 곳인데, 한남대학교를 포함하고 있어 대학생 1인가구가 밀집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동구 자양동과 용운동은 각각 우송대학교와 대전대학교가 포함돼 있고, 유성구 온천 1, 2동은 한밭대학교 및 충남대와 카이스트를, 서구 도마 1동은 배재대학교 인근이라는 특징이 있음

- 대학교 인근이라는 특징이 젊은 1인가구의 밀집을 유인했다고 한다면, 1인가구 비중 40%를 넘긴 행정동 주변에는 도시철도가 있어 임금노동자들을 유인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 동구 중앙동과 판암2동은 각각 대전역과 신흥역, 중구 은행선화동은 중구청역, 서구 월평1동은 갑천역과 월평역, 괴정동은 용운역과 탄방역에 인근해 있다는 특징을 보임
- 1인가구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주요 행정동의 성별에 따른 1인가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8]⁷⁾와 같음

7) 전체 행정동별 남녀 1인가구 현황 표는 부록에 게재

[표 2-8]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

(단위 : 명, %)

행정동	전체		여성		남성	
	가구수	비율 ¹⁾	가구수	비율 ²⁾	가구수	비율 ³⁾
자양동	5,830	66.5	2,471	28.2	3,362	38.3
온천2동	9,532	52.1	3,468	18.9	6,063	33.1
월평1동	3,053	50.8	1,306	21.7	1,747	29.1
온천1동	7,371	50.1	3,083	21.0	4,287	29.1
오정동	4,691	50.1	1,918	20.5	2,773	29.6
용운동	5,652	50.0	2,302	20.4	3,351	29.7
판암2동	2,312	44.7	1,326	25.7	985	19.1
은행선화동	3,468	44.1	1,544	19.6	1,924	24.5
중앙동	1,158	43.9	492	18.6	667	25.3
도마1동	3,771	43.4	1,673	19.2	2,103	24.2
괴정동	3,653	40.5	1,905	21.1	1,748	19.4
용문동	2,790	39.8	1,566	22.4	1,224	17.5
갈마2동	4,518	38.9	2,296	19.8	2,233	19.2
탄방동	4,862	38.8	2,669	21.3	2,193	17.5
용전동	3,479	38.6	1,620	18.0	1,860	20.6
대사동	1,034	38.1	564	20.8	470	17.3
도마2동	3,440	37.0	1,504	16.2	1,931	20.7
갈마1동	3,592	36.4	1,658	16.8	1,923	19.5
대흥동	2,067	35.9	1,043	18.1	1,025	17.8

주: 행정동 기준

1) (1인가구/일반가구)*100

2) (여성1인가구/일반가구)*100

3) (남성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양동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온천2동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 1인가구의 분포가 약 15%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밀집 행정동은 모두 남성 1인가구의 비율이 여성 1인가구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

[표 2-9] 대전 1인가구 밀집지역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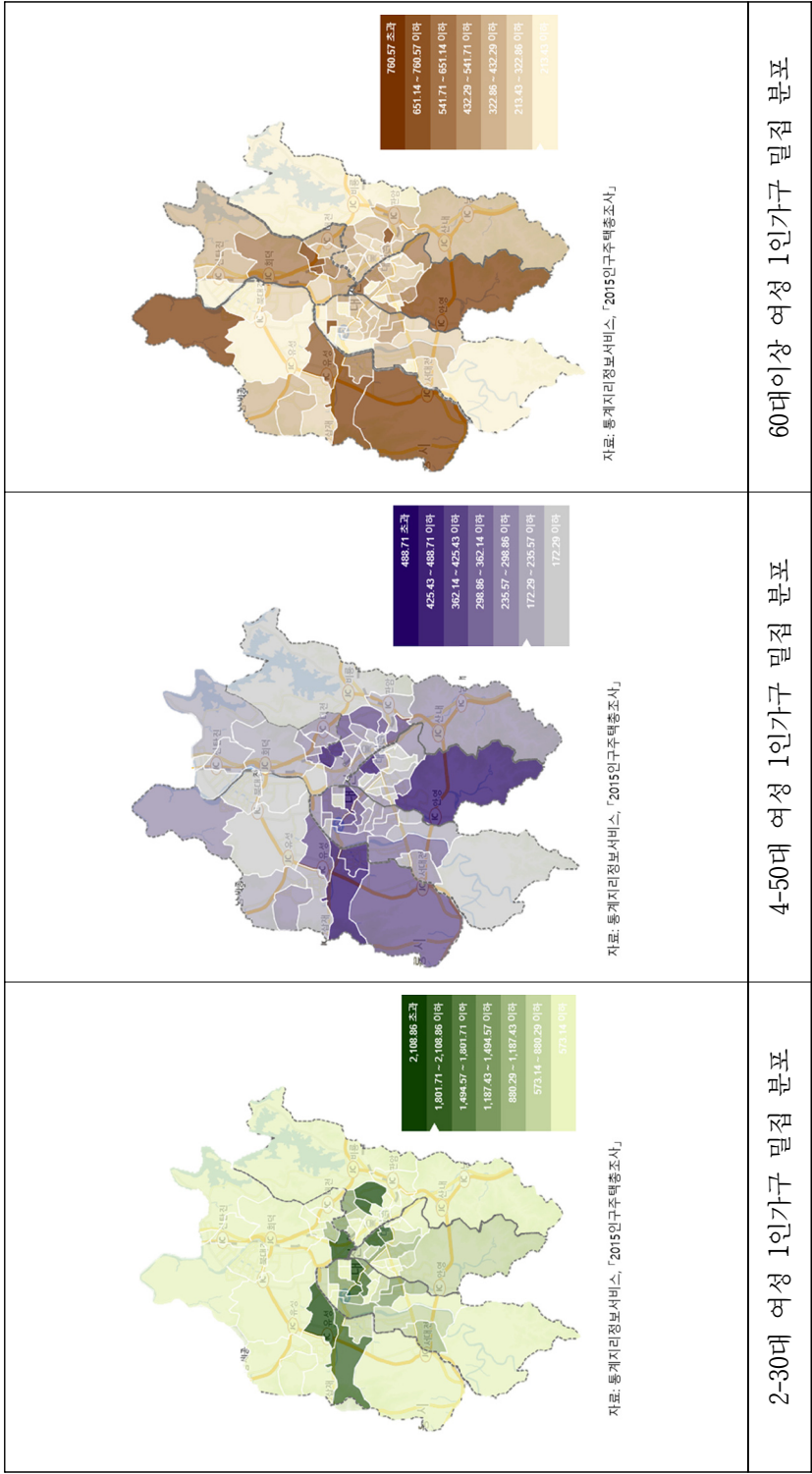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행정동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자양동 (66.5)	521	1,411	87	93	110	249
온천2동 (52.1)	153	1,965	451	234	274	391
월평1동 (50.8)	14	368	303	228	209	184
온천1동 (50.1)	48	1,140	683	378	333	501
오정동 (50.1)	270	900	113	124	168	343
용운동 (50.0)	265	1,230	104	112	202	389
관암2동 (50.6)	-	38	51	101	263	870
은행선화동 (41.7)	9	371	256	218	243	447
중앙동 (53.7)	-	20	24	42	91	313
도마1동 (43.4)	95	707	85	106	197	483
괴정동 (40.5)	25	614	481	253	198	334

주: ()안은 1인가구비율(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 위 [표 2-9]에 나타나듯이, 관암2동 은행선화동, 중앙동은 60세 이상의 고령 여성 1인가구가 동 내 다른 연령대 여성 1인가구보다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0대 여성 1인가구가 1인가구 밀집 행정동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1인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행정동 중 여성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온천2동(35.4세)이며, 그 다음으로 낮은 곳이 자양동(37.6세)인 점은 두 지역 모두 대학들을 포함하고 있는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중앙동은 여성 평균 연령이 53.7세로 가장 높으며, 관암2동도 50.6세로 거주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음



[그림 2-3] 대전지역 행정동에 따른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분포 비교

- 위 [그림 2-3]은 2,30대를 청년층, 4,50대를 장년층, 그리고 60대 이상을 노년층으로 임의 구분하고, 세 가지 연령대별 구분에 따른 여성 1인가구의 행정동별 밀집 현황을 분포도로 나타낸 것임
- 청년층 여성 1인가구는 지하철 노선을 따라 분포한다고 해도 될 만큼 도심지역, 지하철 노선과 가까운 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갈수록 여성 1인가구의 분포가 외곽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연령과 혼인

- 연령대별 여성1인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20세미만과 20대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각각 48.3%와 44.2%를 보이다가 30대에서는 37.1%, 40대에서는 38.1%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표 2-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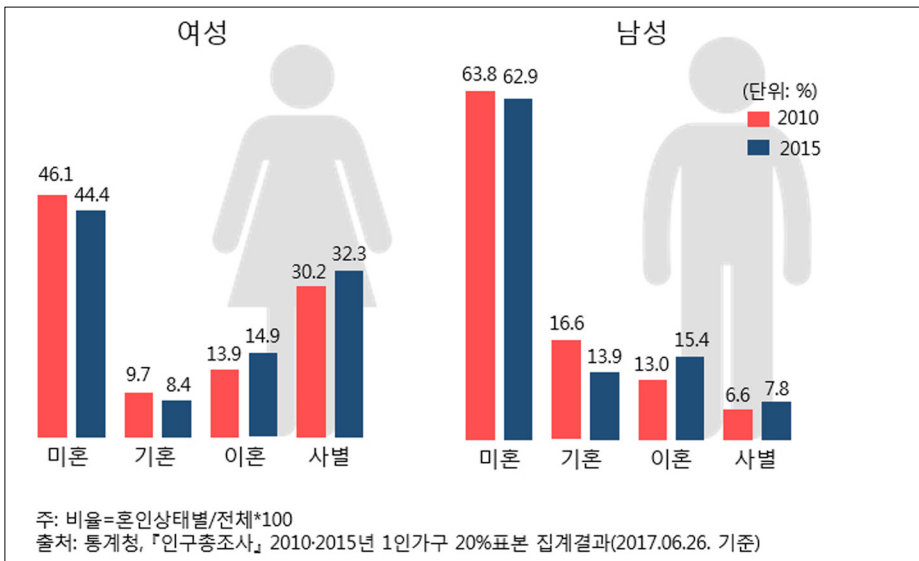
[표 2-10] 대전지역 연령대별 1인가구

(단위 : 명, %)

구분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전체	169,391	34,631	24,377	52,538	37,294	20,551
	여성	82,278	16,614	12,899	27,214	15,799	9,752
	남성	87,113	18,017	11,478	25,324	21,495	10,799
	여성비율	48.6	48.0	52.9	51.8	42.4	47.5
20세 미만	전체	4,869	2,307	143	1,174	619	626
	여성	2,353	1,103	77	540	305	328
	남성	2,516	1,204	66	634	314	298
	여성비율	48.3	47.8	53.8	46.0	49.3	52.4
20대	전체	45,199	10,616	3,405	14,760	12,372	4,046
	여성	19,968	4,466	1,791	7,342	4,786	1,583
	남성	25,231	6,150	1,614	7,418	7,586	2,463
	여성비율	44.2	42.1	52.6	49.7	38.7	39.1
30대	전체	30,446	3,642	3,680	10,971	9,205	2,948
	여성	11,306	1,196	1,409	4,699	3,072	930
	남성	19,140	2,446	2,271	6,272	6,133	2,018
	여성비율	37.1	32.8	38.3	42.8	33.4	31.5
40대	전체	25,382	4,007	3,846	8,257	5,721	3,551
	여성	9,683	1,369	1,457	3,521	2,165	1,171
	남성	15,699	2,638	2,389	4,736	3,556	2,380
	여성비율	38.1	34.2	37.9	42.6	37.8	33.0
50대	전체	25,420	5,066	4,766	7,262	4,523	3,803
	여성	12,158	2,312	2,214	3,755	2,091	1,786
	남성	13,262	2,754	2,552	3,507	2,432	2,017
	여성비율	47.8	45.6	46.5	51.7	46.2	47.0
60대	전체	17,884	4,124	3,961	4,797	2,387	2,615
	여성	11,100	2,424	2,435	3,148	1,444	1,649
	남성	6,784	1,700	1,526	1,649	943	966
	여성비율	62.1	58.8	61.5	65.6	60.5	63.1
70세 이상	전체	20,191	4,869	4,576	5,317	2,467	2,962
	여성	15,710	3,744	3,516	4,209	1,936	2,305
	남성	4,481	1,125	1,060	1,108	531	657
	여성비율	77.8	76.9	76.8	79.2	78.5	77.8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 여성 1인가구는 3,40대에 줄어들었다가 50대 이후 증가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서구는 3,40대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42%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특징을 보이며, 반대로 대덕구는 3,40대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각각 31.5%, 33.0%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동구와 중구는 고령 1인가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데, 동구의 경우 6,70대 1인가구의 수가 8,993가구로, 동구 총 1인가구의 약 26%에 이르며, 중구는 8,537가구로 약 35%에 달해 가장 높은 고령 1인가구 비율을 보임
- 6,70대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유성구로 유성구 1인가구의 13.02%이며, 서구의 고령 1인가구는 10,114가구로 수는 많지만 비율은 19.25%에 불과함
- 성별에 따라 1인가구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미혼 비율이 2010년이나 2105년 조사 당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2015년에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임([그림 2-4]참조)



[그림 2-4] 대전지역 1인가구의 성별 혼인상태 분포 변화(2010, 2015)

- 남녀 모두 1인가구 중 기혼의 비율이 줄어든데 비해, 사별과 이혼 비율은 증가한 특징을 보임
- 성과 연령대에 따라 1인가구의 혼인상태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1]과 같음

[표 2-11]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대전시

(단위 : %)

구분	합계	미혼	기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전체	100.0(52.1)	44.4(43.4)	8.4(39.6)	32.3(81.8)	14.9(51.2)
20세 미만	100.0(48.2)	100.0(48.2)	0.0(0.0)	0.0(0.0)	0.0(0.0)
20대	100.0(47.8)	98.8(47.8)	1.1(56.2)	0.0(0.0)	0.2(46.7)
30대	100.0(39.2)	85.3(38.5)	8.3(37.0)	0.2(42.2)	6.2(58.0)
40대	100.0(40.4)	48.0(36.6)	16.3(31.8)	3.4(71.6)	32.3(53.2)
50대	100.0(49.9)	12.5(34.1)	20.8(40.3)	26.6(81.2)	40.1(50.4)
60대	100.0(64.2)	5.9(49.3)	11.1(48.3)	59.9(81.3)	23.1(49.1)
70세 이상	100.0(77.4)	1.8(65.7)	3.2(42.9)	89.3(82.6)	5.8(52.4)

주: 1) 값=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연령별 여성전체*100

2) 괄호 안은 ‘여성비율(여성/전체*100)’.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1인가구 20%표본 집계결과 (2017.06.26. 기준)

- 20대와 30대 1인가구는 미혼이 같은 연령대 안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40대부터는 미혼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이혼의 비율은 4,50대에서 각각 32.3%와 40.1%의 비율을 차지하며, 연령이 높아지면서 사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4) 혼자 사는 이유와 필요한 사회적 지원 수요

- ‘혼자 사는 이유’에 대한 대전시 사회조사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2-12]와 같음

[표 2-12] 혼자 사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합계	직장 때문에 (구직 포함)	학업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요양 포함)	가족 간 불화로	사별	기타
전체	1,221(100.0)	339(27.8)	173(14.2)	11(0.9)	137(11.2)	557(45.6)	4(0.3)
남성	510(100.0)	186(36.5)	103(20.2)	3(0.6)	63(12.4)	152(29.8)	3(0.6)
여성	711(100.0)	153(21.5)	70(9.8)	8(1.1)	74(10.4)	405(57.0)	1(0.1)

주: 1인가구에 한함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남성 1인가구의 혼자 사는 주된 이유는 “구직을 포함한 직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1인가구의 혼자 사는 주된 이유는 “사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 2-1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13] 1인가구 거처의 종류

(단위 : 명, %)

구분	전체	주택					비주택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 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체	169,391	96,352	53,130	2,108	7,114	2,785	7,902
여성	82,278	41,980	30,864	1,209	4,056	1,214	2,955
남성	87,113	54,372	22,266	899	3,058	1,571	4,947
여성비율	48.6	43.6	58.1	57.4	57.0	43.6	37.4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1,2순위를 선택하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사업상 또는 직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했으며(31.7%), 1인가구도 ‘사업상 또는 직장(27.4%)’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함([표 2-14]참조)
-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자녀 또는 본인의 학업(15.1%)’이 거주지 선택 사유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되는데 비해, 여성 1인가구는 ‘옛날부터 살아와서(16.2%)’와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16.3%)’가 ‘사업상 또는 직장’요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되었음

[표 2-14] 거주지 선택 고려사항 (1순위)

(단위 : 명, %)

구분	전체	사업장 또는 직장	자녀의 양육	자녀교육 또는 본인 학업	근린생활 시설 (할인점, 문화센터 등)	자연 환경	주택가격 등 경제적 가치상승 기대	교통 편리	옛날부터 살아와서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서	기타
전체 (1인+비1인)	5,000 (100.0)	1,586 (31.7)	318 (6.4)	350 (7.0)	370 (7.4)	289 (5.8)	348 (7.0)	528 (10.6)	528 (10.6)	677 (13.5)	6 (0.1)
1인 가구	전체	1,294 (100.0)	35 (2.7)	157 (12.1)	108 (8.3)	63 (4.9)	54 (4.2)	154 (11.9)	175 (13.5)	191 (14.8)	3 (0.2)
	남성	517 (100.0)	175 (33.8)	14 (2.7)	78 (15.1)	39 (7.5)	18 (3.5)	20 (3.9)	49 (9.5)	64 (12.4)	1 (0.2)
비1인가구	여성	777 (100.0)	179 (23.0)	21 (2.7)	79 (10.2)	69 (8.9)	45 (5.8)	34 (4.4)	126 (16.2)	127 (16.3)	2 (0.3)
	전체	3,706 (100.0)	1,232 (33.2)	283 (7.6)	193 (5.2)	262 (7.1)	226 (6.1)	294 (7.9)	374 (10.1)	486 (13.1)	3 (0.1)

자료: 2015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2-15]와 같음
-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만족도 평균은 3.61점으로 나타났으며, 비 1인가구의 만족도는 3.61점으로 1인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평균 3.57점 보다 높음
- 여성 1인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평균은 2.55점인데, 이는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크게 낮은 점수임

[표 2-15]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1,057 (100.0)	37 (0.3)	555 (5.0)	3,909 (35.4)	5,760 (52.1)	796 (7.2)	3.61	
1인 가구	전체	1,294 (100.0)	6 (0.5)	60 (4.6)	491 (37.9)	667 (51.5)	70 (5.4)	3.57
	남성	517 (100.0)	3 (0.6)	23 (4.4)	176 (34.0)	295 (57.1)	20 (3.9)	3.59
	여성	777 (100.0)	3 (0.4)	37 (4.8)	315 (40.5)	372 (47.9)	50 (6.4)	2.55
비1인가구	9,763 (100.0)	31 (0.3)	495 (5.1)	3,418 (35.0)	5,093 (52.2)	726 (7.4)	3.61	

자료: 2015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1인가구의 삶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란 물음에 1,221명 1인가구주의 40.1%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으로 예측함

[표 2-16] 1인가구 예상 지속 기간

(단위 : 명, %)

	합계	3년 이하	4년 이상 -10년 이하	앞으로 계속 지속	잘 모르겠다
전체	1,221(100.0)	184(15.1)	310(25.4)	490(40.1)	237(19.4)
남성	510(100.0)	97(19.0)	144(28.2)	183(35.9)	86(16.9)
여성	711(100.0)	87(12.2)	166(23.3)	307(43.2)	151(21.2)

주: 1인가구에 한함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여성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 1인가구로 살아갈 것이라는 예측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불확실하다는 응답도 남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혼자 거주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물었을 때 1인가구주들은 다음과 같은 점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함

[표 2-17] 1인가구의 고충

(단위 : 명, %)

구분	합계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 해결	경제적 불안정	안전에 대한 걱정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노후에 대한 불안감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전체	1,221 (100.0)	480 (39.3)	184 (15.1)	183 (15.0)	86 (7.0)	160 (13.1)	98 (8.0)	30 (2.5)
남성	510 (100.0)	194 (38.0)	94 (18.4)	75 (14.7)	29 (5.7)	73 (14.3)	31 (6.1)	14 (2.7)
여성	711 (100.0)	286 (40.2)	90 (12.7)	108 (15.2)	57 (8.0)	87 (12.2)	67 (9.4)	16 (2.3)

주: 1인가구에 한함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혼자 살아서 가장 힘든 점이라고 1인가구 응답자의 39.3%가 답했으며, 이는 여성 1인가구나 남성 1인가구 모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택됨
-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이 그 다음으로 큰 어려움인데 비해, 남성 1인가구는 ‘가사 등 일상생활문제’가 두 번째로 느끼는 어려움이라고 답함
- 1인가구가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상품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응답함

[표 2-18] 1인가구 필요정책 및 마케팅 상품

(단위 : 명, %)

구분	합계	소형의 삶을 위한 정책 지원(또는 상품)	효율적 삶을 위한 정책 지원(또는 상품)	안전한 삶을 위한 정책 지원(또는 상품)	자기관리의 삶을 위한 정책 지원(또는 상품)
전체	1,221(100.0)	329(26.9)	360(29.5)	362(29.6)	170(13.9)
남성	510(100.0)	140(27.5)	162(31.8)	135(26.5)	73(14.3)
여성	711(100.0)	189(26.6)	198(27.8)	227(31.9)	97(13.6)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1인가구에 한함

-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안전한 삶을 위한 정책 지원이나 상품⁸⁾’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남성 1인가구는 안전보다 ‘효율적 삶을 위한 정책 지원이나 상품⁹⁾’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소형의 삶을 위한 정책이나 상품’에는 ‘소형주택공급’, ‘공공형임대주택’, ‘소형가전’, ‘소포장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해당되며, 남성의 선호가 다소 높았음
- ‘자기관리의 삶을 위한 정책이나 상품¹⁰⁾’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선택함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응답자들은 [표 2-19]와 같이 응답함
- 전체적으로는 ‘고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20.9%), ‘소득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19.8%)’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되었음
- ‘안전’과 ‘주거’관련한 서비스 필요도는 각각 16.7%, 16.3%의 응답자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 1순위로 선택함

8) 본 설문(2016 대전시 사회조사)에서 안전한 삶을 위한 지원과 상품이란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택배수화물 서비스’, ‘비상연락망체계’, ‘안전골목길’ 등을 의미함

9) 웨어하우스, ‘1인가구 마을공동체’, ‘간편 1인식당’, ‘간편 식사 제품’ 등이 해당함

10) ‘건강관리도우미’ 1인가구 삶의 패턴에 맞춘 문화생활이나 스포츠 지원’ 등을 의미함

- 1인가구 전체적으로는 ‘고용 및 취업지원(19.6%)’ 보다 ‘소득지원(21.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여성 1인가구는 ‘소득지원(21.8%)’이 가장 많이 1순위로 선택된데 비해 남성 1인가구는 ‘고용 및 취업지원(21.0%)’이 가장 많이 선택된 특성을 보임
- 1인가구는 비 1인가구에 비해 ‘안전’이나 ‘보건의료’ 관련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선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9] 향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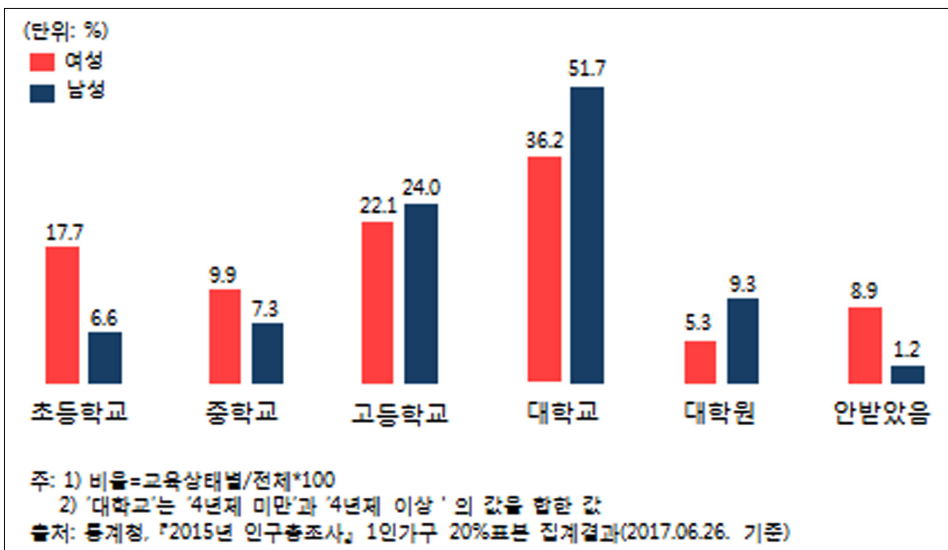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합계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소득 지원 서비스	주거 관련 서비스	안전 관련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여가·문화 향유 지원 서비스	기타
전체 (1인+비1인)	10,946 (100.0)	2,292 (20.9)	2,168 (19.8)	1,780 (16.3)	1,830 (16.7)	1,307 (11.9)	783 (7.2)	785 (7.2)	1 (0.0)
1인 가구	전체	239 (19.6)	261 (21.4)	219 (17.9)	222 (18.2)	171 (14.0)	34 (2.8)	75 (6.1)	-
	남성	107 (21.0)	106 (20.8)	91 (17.8)	93 (18.2)	61 (12.0)	12 (2.4)	40 (7.8)	-
비1인가구	여성	132 (18.6)	155 (21.8)	128 (18.0)	129 (18.1)	110 (15.5)	22 (3.1)	35 (4.9)	-
	합계	2,053 (21.1)	1,907 (19.6)	1,561 (16.1)	1,608 (16.5)	1,136 (11.7)	749 (7.7)	710 (7.3)	1 (0.0)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5) 소득과 경제활동

- 1인가구의 교육상태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1인가구의 51.7%가 대졸로 파악되는데 비해, 여성 1인가구의 대졸 비율은 36.2%에 불과함([그림 2-5]참조)
-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학력 구간은 초등학교, 중학교와 무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에 비해 평균 학력(교육년수)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2-5] 성별 · 교육상태별 1인가구 현황

- 1인가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중 ‘일하지 않음’의 비율이 여성에게서 좀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일하지 않는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대에는 ‘주로 일하는’ 1인가구의 비율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3,40대에 37.7%, 36.4%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M-Curve’ 특성을 드러냄

[표 2-20] 연령별·성별·경제활동상태별 1인가구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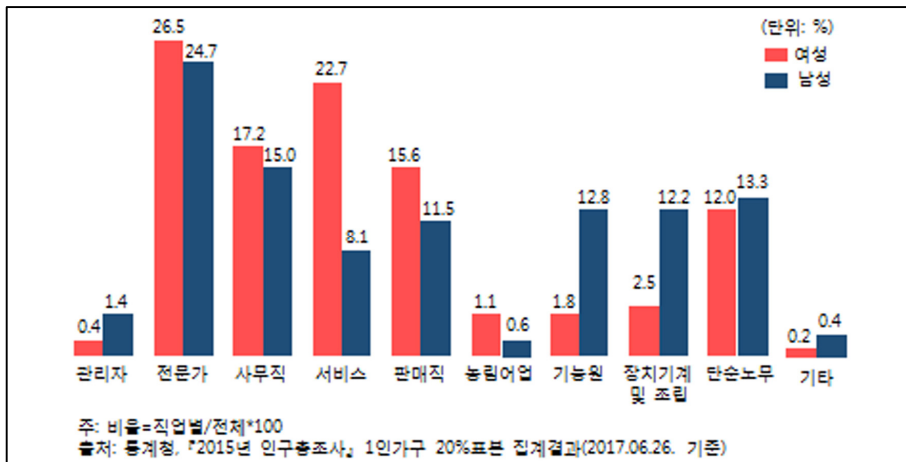
연령	합계	일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시휴직	
전체	100.0(52.1)	41.2(44.7)	3.5(52.9)	0.7(48.5)	54.5(59.5)
20세 미만	100.0(48.2)	5.7(53.8)	9.0(51.6)	0.0(0.0)	85.3(47.5)
20대	100.0(47.8)	46.0(55.1)	7.3(45.3)	0.7(61.8)	45.9(42.5)
30대	100.0(39.2)	77.4(37.7)	1.8(40.8)	1.7(48.1)	19.0(45.6)
40대	100.0(40.4)	68.4(36.4)	2.9(58.6)	2.0(45.6)	26.7(52.7)
50대	100.0(49.9)	55.4(44.1)	2.5(75.9)	0.6(38.8)	41.5(59.1)
60대	100.0(64.2)	25.2(52.4)	2.0(71.5)	0.3(57.9)	72.5(69.6)
70세 이상	100.0(77.4)	8.6(69.6)	1.7(90.6)	0.1(46.2)	89.6(78.1)

주: 1) 값=연령별·경제활동상태별 여성/연령별 여성전체*100

2) ()안은 ‘여성비율(여성/전체*100)’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1인가구 20%표본 집계결과(2017.06.26. 기준)

○ 1인가구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및 판매직의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크게 높고, 관리자, 기능원 및 기계 장치 및 조립 분야에서는 남성이 월등히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그림 2-6] 성별·직업별 1인가구 현황

- 사회조사를 통해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생각하는가를 물었을 때, 일하는 1인가구 응답자와 모든 응답자의 응답 결과를 정리한 표는 다음 [표 2-21]과 같음

[표 2-21]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6,046 (100.0)	129 (2.1)	1,012 (16.7)	2,561 (42.4)	2,015 (33.3)	329 (5.4)	3.23
1인 가구	전체	551 (100.0)	13 (2.4)	88 (16.0)	238 (43.2)	182 (33.0)	30 (5.4)	3.23
	남성	247 (100.0)	4 (1.6)	37 (15.0)	103 (41.7)	89 (36.0)	14 (5.7)	3.29
	여성	304 (100.0)	9 (3.0)	51 (16.8)	135 (44.4)	93 (30.6)	16 (5.3)	3.18
비1인가구		5,495 (100.0)	116 (2.1)	924 (16.8)	2,323 (42.3)	1,833 (33.4)	299 (5.4)	3.23

주: ‘모르겠다’ 와 ‘해당없음’ 은 제외

자료: 2015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여건에 대한 물음 중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 만족도를 물은 결과 남성 1인가구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의 고용안정성 만족도는 전체 평균과 비1인가구 평균인 3.23점보다 낮게 나타남
- 2016 대전시 사회조사에 나타난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는 다음 [표 2-22]와 같음
- 여성 1인가구의 78.9%가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남성 1인가구의 경우엔 58.4%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다고 밝힘
- 가계 지출 항목에 있어서, 1인가구는 주생활에 사용하는 비중이 비1인가구보다 높았으며, 남녀 1인가구 모두 식생활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2-23] 참조)

[표 2-22]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

구분	합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체 (1인+비1인)	5,000 (100.0)	688 (13.8)	830 (16.6)	894 (17.9)	1,044 (20.9)	864 (17.3)	471 (9.4)	146 (2.9)	63 (1.3)
1인 가구	전체	507 (41.5)	352 (28.8)	265 (21.7)	71 (5.8)	20 (1.6)	4 (0.3)	2 (0.2)	-
	남성	180 (35.3)	118 (23.1)	148 (29.0)	48 (9.4)	12 (2.4)	3 (0.6)	1 (0.2)	-
	여성	327 (46.0)	234 (32.9)	117 (16.5)	23 (3.2)	8 (1.1)	1 (0.1)	1 (0.1)	-
비1인가구	3,779 (100.0)	181 (4.8)	478 (12.6)	629 (16.6)	973 (25.7)	844 (22.3)	467 (12.4)	144 (3.8)	63 (1.7)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표 2-23] 가계부담 지출항목 (1순위)

(단위 : 명, %)

구분	합계	의생활비	식생활비 (주식, 부식, 외식 등)	주생활비 (전월세비, 관리비 등)	의료비	교육비	노인 돌봄 · 영유아 보육비	정보 통신비	교통 자동차 유지비	여가 여행비	경조사비	공공 서비스비 (도시·가스·전기·수도요금 등)	보건 위생비	저축 투자금	개인 보험 개인 연금	배우자구입비 (자동차, 가계, 가전 등)	경상 비경상 세금	국민 연금 사회 보험	원리금 상환
전체 (1인+비1인)	5,000 (100.0)	269 (5.4)	2,114 (42.3)	804 (16.1)	286 (5.7)	555 (11.9)	21 (0.4)	56 (1.1)	90 (1.8)	38 (0.8)	101 (2.0)	82 (1.6)	14 (0.3)	175 (3.5)	136 (2.7)	51 (1.0)	11 (0.2)	17 (0.3)	140 (2.8)
1인 가구	전체	82 (6.7)	579 (47.4)	253 (20.7)	99 (8.1)	40 (3.3)	-	11 (0.9)	31 (2.5)	12 (1.0)	11 (0.9)	24 (2.0)	2 (0.2)	34 (2.8)	25 (2.0)	5 (0.4)	-	1 (0.1)	12 (1.0)
	남성	28 (5.5)	227 (44.5)	122 (23.9)	24 (4.7)	22 (4.3)	-	4 (0.8)	23 (4.5)	6 (1.2)	4 (0.8)	11 (2.2)	2 (0.4)	14 (2.7)	14 (2.7)	2 (0.4)	-	-	7 (1.4)
비1인가구	여성	54 (7.6)	352 (49.5)	131 (18.4)	75 (10.5)	18 (2.5)	-	7 (1.0)	8 (1.1)	6 (0.8)	7 (1.0)	13 (1.8)	-	20 (2.8)	11 (1.5)	3 (0.4)	-	1 (0.1)	5 (0.7)
	합계	3,779 (100.0)	187 (4.9)	1,535 (40.6)	551 (14.6)	187 (4.9)	555 (14.7)	21 (0.6)	45 (1.2)	59 (1.6)	26 (0.7)	90 (2.4)	58 (1.5)	12 (0.3)	141 (3.7)	111 (2.9)	46 (1.2)	16 (0.4)	128 (3.4)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의료비 지출과 의생활비 지출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 만족도에 있어서도 여성 1인가구는 낮은 만족감을 보임

[표 2-24]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7,947 (100.0)	683 (8.6)	2,271 (28.6)	4,075 (51.3)	868 (10.9)	50 (0.6)	2.66
1인 가구	전체	965 (100.0)	86 (8.9)	294 (30.5)	490 (50.8)	87 (9.0)	8 (0.8)	2.62
	남성	415 (100.0)	26 (6.3)	110 (26.5)	226 (54.5)	47 (11.3)	6 (1.4)	2.75
	여성	550 (100.0)	60 (10.9)	184 (33.5)	264 (48.0)	40 (7.3)	2 (0.4)	2.53
비1인가구		6,982 (100.0)	597 (8.6)	1,977 (28.3)	3,585 (51.3)	781 (11.2)	42 (0.6)	2.67

주: '소득없음' 제외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위 [표 2-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 1인가구의 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비해 남성 1인가구의 소득 만족도는 비교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2016 대전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9점으로 남성 1인가구 2.93뿐 아니라 전체 가구 평균인 2.87점보다 낮게 나타남
- 경제·사회적인 위치(계층)를 포괄적으로 묻는 물음에 대해서도 여성 1인가구의 계층 귀속 의식은 가장 낮게 나타남. 계층 구분을 '하하(1점)'에서 '상상(6점)'까지 두고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에 표기

하게 한 결과, 여성 1인가구는 평점 2.50점, ‘하상’과 ‘중하’사이로 나타났으며, 남성 1인가구는 2.69점으로 여성 1인가구보다 높았음. 비1인가구의 계층 인식이 3.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6) 건강과 여가

(1) 건강유지 활동

- 사회조사에서 ‘지난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얼마나 했는가’ 물었을 때, 여성 1인가구의 60.3%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남성 1인가구의 45.3%는 운동을 한다고 답함
-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 1인가구의 28.9%는 건강 상 문제가 있어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어, 귀찮거나 바빠서 운동을 하지 않는 남성 1인가구와 다소 다른 답변을 보임
- 운동을 하는 경우, 여성 1인가구의 운동 일수는 비교 집단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일주일 평균 3.95일)
- 여성 1인가구는 가장 자주 운동을 하지만 운동 시간은 평균 43.40분으로 다른 비교 집단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5] 주로 운동하는 장소 및 평균 운동 일수와 시간

(단위 : 명, %)

구분	합계	공원 및 산 등의 산책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영시설 (문화센터 등)	학교 체육시설	민간상업 체육시설 (헬스클럽, 피트니스, 요가, 수영 등)	직장내 체육시설	집에서 간단한 운동 (스트레칭 등)	기타	일수 (일주일 평균)	시간 (분, 1회 평균)
1인 가구	전체	2,458 (51.0)	191 (4.0)	567 (11.8)	1,087 (22.5)	84 (1.7)	429 (8.9)	5 (0.1)	3.61	51.92
	남성	98 (42.4)	5 (2.2)	47 (20.3)	64 (27.7)	9 (3.9)	8 (3.5)	-	3.52	55.00
	여성	164 (58.2)	7 (2.5)	27 (9.6)	48 (17.0)	2 (0.7)	34 (12.1)	-	3.95	43.40
비1인가구	4,308 (100.0)	2,196 (51.0)	179 (4.2)	493 (11.4)	975 (22.6)	73 (1.7)	387 (9.0)	5 (0.1)	3.59	52.31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표 2-26] 향후 필요한 공공시설 (1순위)

(단위 : 명, %)

구분	합계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공원, 녹지, 산책로	보건의료시설(공공병원, 보건소 등)	사회복지시설(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공영주차시설	문화예술회관(시민회관 등)	도서관	체육시설 및 경기장	기타
전체 (1인+비1인)	10,946 (100.0)	1,437 (13.1)	2,809 (25.7)	2,486 (22.7)	2,015 (18.4)	875 (8.0)	611 (5.6)	406 (3.7)	305 (2.8)	2 (0.0)
1인 가구	전체	134 (11.0)	251 (20.6)	311 (25.5)	268 (21.9)	110 (9.0)	72 (5.9)	37 (3.0)	38 (3.1)	-
	남성	57 (11.2)	108 (21.2)	112 (22.0)	111 (21.8)	62 (12.2)	27 (5.3)	14 (2.7)	19 (3.7)	-
여성	77 (10.8)	77 (10.8)	143 (20.1)	199 (28.0)	157 (22.1)	48 (6.8)	45 (6.3)	23 (3.2)	19 (2.7)	-
비1인가구	9,725 (100.0)	1,303 (13.4)	2,558 (26.3)	2,175 (22.4)	1,747 (18.0)	765 (7.9)	539 (5.5)	369 (3.8)	267 (2.7)	2 (0.0)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2016년 사회조사를 통해 대전시민에게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어떤 것’인지 물었을 때 답한 결과는 [표 2-26]과 같음
-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성이 제기된 시설은 ‘공원과 녹지, 산책로’였으며(25.7%), 그 다음으로는 ‘보건의료시설(22.7%)’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선택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18.4%)’임
- 1인가구주들은 필요한 공공시설로 ‘공원과 녹지, 산책로’를 세 번째로 많이 선택했으며(20.6%), ‘사회복지시설’을 두 번째로(21.9%), 그리고 ‘보건의료시설’(25.5%)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여성 1인가구도 ‘보건의료시설’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28.0%), 남성 1인가구의 ‘공영주차시설’에 대한 수요 비율이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다소 높다는 특징이 나타남

(2) 여가활동

- 지난 1년 동안 관람한 예술행사를 항목별로 답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27]과 같음
- 1인가구는 비1인가구와 비교해, 1년 동안 관람한 예술활동 회수가 적음
- 특히 여성 1인가구의 예술활동 관람 회수가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으로 영화관람을 연중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중음악 관련 관람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27] 예술활동 관람 횟수

(단위 : 건)

구분	전체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회 등)	미술전시회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전시회	서양음악 (클래식, 서양 악기 관련)	전통예술 (국악, 풍물, 민속극)	연극	뮤지컬	무용 (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영화	대중음악 (콘서트), 연예(방송프로그램 등)
전체 (1인+비1인)	4.42	.10	.12	.10	.06	.13	.12	.03	3.54	.23
1인 가구	전체	.07	.08	.08	.06	.17	.11	.02	3.03	.22
	남성	.09	.08	.09	.06	.24	.13	.01	3.73	.23
	여성	.06	.08	.07	.06	.12	.09	.02	2.53	.21
비1인가구	4.50	.10	.12	.10	.06	.12	.12	.03	3.60	.23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3) 행복과 우울

- 2015 대전시는 사회조사를 통해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는가’와 ‘행복했는가’를 묻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함
- 우울함에 대한 동의 정도를 0점(전혀 그러지 않다)에서 10점(매우 그렇다)로 설정하고, 응답자에게 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 [표 2-28]와 같음

[표 2-28] 우울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0-2점)	약간 그렇지 않다 (3-4점)	보통 (5-6점)	약간 그렇다 (7-8점)	매우 그렇다 (9-10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1,057 (100.0)	3,248 (29.4)	5,205 (47.1)	2,150 (19.4)	421 (3.8)	33 (0.3)	3.40	
1인 가구	전체	1,294 (100.0)	378 (29.2)	622 (48.1)	235 (18.2)	56 (4.3)	3 (0.2)	3.39
	남성	517 (100.0)	155 (30.0)	252 (48.7)	87 (16.8)	21 (4.1)	2 (0.4)	3.34
	여성	777 (100.0)	223 (28.7)	370 (47.6)	148 (19.0)	35 (4.5)	1 (0.1)	3.42
비1인가구	9,763 (100.0)	2,870 (29.4)	4,583 (46.9)	1,915 (19.6)	365 (3.7)	30 (0.3)	3.40	

자료: 2015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전체 응답자와 1인가구의 주관적 우울함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여성 1인가구의 우울함 정도가 비교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가’란 물음은 삶에 대한 가장 간단한 주관적 평가 표현이라 할 수 있음
- 행복에 대한 동의 정도를 0점에서 10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 2-29]와 같음

[표 2-29] 행복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0-2점)	약간 그렇지 않다 (3-4점)	보통 (5-6점)	약간 그렇다 (7-8점)	매우 그렇다 (9-10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1,057 (100.0)	50 (0.5)	839 (7.6)	4,661 (42.2)	4,358 (39.4)	1,149 (10.4)	6.56	
1인 가구	전체	1,294 (100.0)	7 (0.5)	116 (9.0)	576 (44.5)	472 (36.5)	123 (9.5)	6.48
	남성	517 (100.0)	4 (0.8)	38 (7.4)	231 (44.7)	191 (36.9)	53 (10.3)	6.56
	여성	777 (100.0)	3 (0.4)	78 (10.0)	345 (44.4)	281 (36.2)	70 (9.0)	6.42
비1인가구	9,763 (100.0)	43 (0.4)	723 (7.4)	4,085 (41.8)	3,886 (39.8)	1,026 (10.5)	6.57	

자료: 2015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전체 응답자의 행복감 점수 평균은 6.56점이며, 비 1인가구 평균은 6.57점, 1인가구 평균은 6.48점으로 1인가구의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가구의 행복감 평균이 비교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0점에서 10점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도 여성 1인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0]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0-2점)	약간 그렇지 않다 (3-4점)	보통 (5-6점)	약간 그렇다 (7-8점)	매우 그렇다 (9-10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1,057 (100.0)	76 (0.7)	966 (8.7)	5,168 (46.7)	3,973 (35.9)	874 (7.9)	6.32	
1인 가구	전체	1,294 (100.0)	11 (0.9)	132 (10.2)	598 (46.2)	467 (36.1)	86 (6.6)	6.24
	남성	517 (100.0)	2 (0.4)	48 (9.3)	227 (43.9)	201 (38.9)	39 (7.5)	6.34
	여성	777 (100.0)	9 (1.2)	84 (10.8)	371 (47.7)	266 (34.2)	47 (6.0)	6.17
비1인가구	9,763 (100.0)	65 (0.7)	834 (8.5)	4,570 (46.8)	3,506 (35.9)	788 (8.1)	6.33	

자료: 2015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여성 1인가구는 비교집단 중 가장 우울하고, 덜 행복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7) 가족과 친밀한 관계

-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관계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부모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해당사항 없음을 제외하고) 1인가구의 만족도가 비1인가구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2-31] 가족관계 만족도: 본인부모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8,335 (100.0)	9 (0.1)	334 (4.0)	2,958 (35.5)	3,587 (43.0)	1,447 (17.4)	3.98
1인 가구	전체	769 (100.0)	1 (0.1)	18 (2.3)	165 (21.5)	354 (46.0)	231 (30.0)	4.04
	남성	365 (100.0)	0 (0.0)	11 (3.0)	77 (21.1)	162 (44.4)	115 (31.5)	4.04
	여성	404 (100.0)	1 (0.2)	7 (1.7)	88 (21.8)	192 (47.5)	116 (28.7)	4.03
비1인가구		7,566 (100.0)	8 (0.1)	316 (4.2)	2,793 (36.9)	3,233 (42.7)	1,216 (16.1)	3.98

자료: 2015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위 [표 2-31]을 보면, 5점 만점에 1인가구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4.04점으로 비1인가구 3.9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도 비1인가구보다 1인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표 2-32]참조)
- 남성 1인가구의 만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3.68점), 여성 1인가구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도 전체 평균인 3.51점보다 높은 3.58점을 나타내고 있음
- 1인가구는 기존 가족과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나, 특히 청년층에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며, 가족과의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가족구성원들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¹¹⁾

11) 이러한 주장은 청년 1인가구주들과의 집담회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족구성원들 간 만족도도 커졌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음

[표 2-32] 가족관계 만족도: 형제·자매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0,425 (100.0)	24 (0.2)	749 (7.2)	4,482 (43.0)	4,189 (40.2)	981 (9.4)	3.51
1인 가구	전체	1,220 (100.0)	2 (0.2)	62 (5.1)	481 (39.4)	528 (43.3)	147 (12.0)	3.62
	남성	482 (100.0)	1 (0.2)	24 (5.0)	183 (38.0)	196 (40.7)	78 (16.2)	3.68
	여성	738 (100.0)	1 (0.1)	38 (5.1)	298 (40.4)	332 (45.0)	69 (9.3)	3.58
비1인가구		9,205 (100.0)	22 (0.2)	687 (7.5)	4,001 (43.5)	3,661 (39.8)	834 (9.1)	3.50

자료: 2015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2-33]과 같음

[표 2-33] 가족관계 만족도-전반적인 가족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1,057 (100.0)	9 (0.1)	285 (2.6)	4,280 (38.7)	4,949 (44.8)	1,534 (13.9)	3.70
1인 가구	전체	1,294 (100.0)	2 (0.2)	43 (3.3)	487 (37.6)	586 (45.3)	176 (13.6)	3.69
	남성	517 (100.0)	1 (0.2)	16 (3.1)	176 (34.0)	233 (45.1)	91 (17.6)	3.77
	여성	777 (100.0)	1 (0.1)	27 (3.5)	311 (40.0)	353 (45.4)	85 (10.9)	3.64
비1인가구		9,763 (100.0)	7 (0.1)	242 (2.5)	3,793 (38.9)	4,363 (44.7)	1,358 (13.9)	3.70

자료: 2015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남성 1인가구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비교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3.77점)
-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는 비1인가구에 비해 높았으나, 전반적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만족도는 비교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3.64점)

8) 생활안전

- 1인가구가 생활하는 데 있어 경험하는 불편함 중 상당부분은 안전 이슈 혹은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음
- 일상생활 중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와 두려운 정도에 대한 물음과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 2-34]와 같음

[표 2-34]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운 정도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0,946 (100.0)	1,926 (17.6)	4,230 (38.6)	3,404 (31.1)	1,270 (11.6)	116 (1.1)	2.40
1인 가구	전체	1,221 (100.0)	230 (18.8)	419 (34.3)	374 (30.6)	171 (14.0)	27 (2.2)	2.46
	남성	510 (100.0)	122 (23.9)	197 (38.6)	137 (26.9)	48 (9.4)	6 (1.2)	2.25
	여성	711 (100.0)	108 (15.2)	222 (31.2)	237 (33.3)	123 (17.3)	21 (3.0)	2.62
비1인가구		9,725 (100.0)	1,696 (17.4)	3,811 (39.2)	3,030 (31.2)	1,099 (11.3)	89 (0.9)	2.39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운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2.40점이었으며, 1인가구 전체 평균(2.46점)이 비1인가구 평균(2.39점)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여성 1인가구의 평균은 2.62점으로, 집에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비교 집단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평균점이 2.82점으로 같아, 1인 가구와 비1인가구 간 차이가 없었음
- 여성 1인가구와 남성 1인가구는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여성은 3.10점, 남성은 2.44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음 ([표 2-35]참조)

[표 2-35]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운 정도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0,946 (100.0)	1,538 (14.1)	2,709 (24.7)	3,473 (31.7)	2,598 (23.7)	628 (5.7)	2.82	
1인 가구	전체	1,221 (100.0)	198 (16.2)	280 (22.9)	372 (30.5)	281 (23.0)	90 (7.4)	2.82
	남성	510 (100.0)	110 (21.6)	151 (29.6)	178 (34.9)	56 (11.0)	15 (2.9)	2.44
	여성	711 (100.0)	88 (12.4)	129 (18.1)	194 (27.3)	225 (31.6)	75 (10.5)	3.10
비1인가구	9,725 (100.0)	1,340 (13.8)	2,429 (25.0)	3,101 (31.9)	2,317 (23.8)	538 (5.5)	2.82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2016 대전시 사회조사는 자연재해부터 먹거리, 전염병에 이르기까지 사회 여러 분야의 안전함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물었고, 이 중 1인가구의 생활 및 주거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 및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따로 정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음 [표 2-36]은 ‘범죄 위험’에 대해 얼마나 불안한지 혹은 얼마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5점 척도로 묻고 답한 결과임

[표 2-36] 범죄 위협에 대한 불안감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불안	약간 불안	보통	약간 안전	매우 안전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0,946 (100.0)	785 (7.2)	4,968 (45.4)	4,024 (36.8)	1,089 (9.9)	80 (0.7)	2.52	
1인 가구	전체	1,221 (100.0)	100 (8.2)	504 (41.3)	464 (38.0)	137 (11.2)	16 (1.3)	2.56
	남성	510 (100.0)	39 (7.6)	211 (41.4)	191 (37.5)	62 (12.2)	7 (1.4)	2.58
	여성	711 (100.0)	61 (8.6)	293 (41.2)	273 (38.4)	75 (10.5)	9 (1.3)	2.55
비1인가구	9,725 (100.0)	685 (7.0)	4,464 (45.9)	3,560 (36.6)	952 (9.8)	64 (0.7)	2.51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점수가 낮을수록 불안감이 큰 것인데, 불안감이 가장 큰 집단은 비1인가구(2.51점)지만, 1인가구 내 여성과 남성을 비교한 결과 여성의 불안감(2.55점)이 남성(2.58점)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같은 방식으로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2-37]과 같음
- 전체적으로 사회안전 전반에 대한 인식은 범죄에 대한 인식보다는 다소 양호하게 나타남
- 사회 전반적 안전에 대한 불안감 평균은 2.74점으로 안전한 쪽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여성 1인가구의 불안감 평균은 2.73점으로 비교 집단 중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37]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불안	약간 불안	보통	약간 안전	매우 안전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0,946 (100.0)	470 (4.3)	3,740 (34.2)	4,994 (45.6)	1,687 (15.4)	55 (0.5)	2.74
1인 가구	전체	1,221 (100.0)	48 (3.9)	430 (35.2)	543 (44.5)	192 (15.7)	8 (0.7)	2.74
	남성	510 (100.0)	22 (4.3)	174 (34.1)	226 (44.3)	84 (16.5)	4 (0.8)	2.75
	여성	711 (100.0)	26 (3.7)	256 (36.0)	317 (44.6)	108 (15.2)	4 (0.6)	2.73
비1인가구		9,725 (100.0)	422 (4.3)	3,310 (34.0)	4,451 (45.8)	1,495 (15.4)	47 (0.5)	2.74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도시가 보다 안전해지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한 결과는 다음 [표 2-38]와 같음
-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도시 안전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으로 ‘CCTV 설치 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36.2%)했으며, ‘지역경찰 순찰 강화(21.1%)’와 ‘시민 순찰봉사활동 강화(16.6%)’를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함
- 여성 1인가구도 유사한 순서로 도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선택했으며, 특히 ‘안심귀가 도우미 활용(6.2%)’을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다소 많이 선택한 특징을 보임

[표 2-38] 도시 안전을 위한 필요사항

(단위 : 명, %)

구분	합계	가로등 개보수	공·폐가 · 방치가옥 관리	시민 순찰봉사 활동 강화	안심귀가 도우미 활동	지역 경찰 순찰 강화	CCTV 설치 확대	
전체 (1인+비1인)	10,897 (100.0)	1,076 (9.9)	1,183 (10.9)	1,806 (16.6)	590 (5.4)	2,297 (21.1)	3,945 (36.2)	
1인 가구	전체	1,220 (100.0)	96 (7.9)	138 (11.3)	204 (16.7)	66 (5.4)	244 (20.0)	472 (38.7)
	남성	509 (100.0)	43 (8.4)	66 (13.0)	96 (18.9)	22 (4.3)	94 (18.5)	188 (36.9)
	여성	711 (100.0)	53 (7.5)	72 (10.1)	108 (15.2)	44 (6.2)	150 (21.1)	284 (39.9)
비1인가구	9,677 (100.0)	980 (10.1)	1,045 (10.8)	1,602 (16.6)	524 (5.4)	2,053 (21.2)	3,473 (35.9)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기타'와 '해당없음'은 제외

- 각종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화기(소화전)활용', '심폐소생술', '상황별(화재·지진·홍수 등) 대피', '전염병 등 발생 시 조치'상황에 대한 대응 정도를 묻고 답한 결과는 다음 [표 2-39]와 같음
- '소화기 활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1%가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각 상황 중 대응법 인지율이 가장 높은 항목임
- 그러나, 여성 1인가구는 소화기 활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48.5%에 달해 비교 집단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폐소생술 등 다른 위급 상황 대처에 있어서도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9] 사고 대응요령

(단위 : 명, %)

구분	합계	소화기 활용범		심폐소생술			상황별 대피 요령			진염병 등 발생 시 조치 요령			
		모른다	대략적으로 알고있다	정확히 알고있다	모른다	대략적으로 알고있다	정확히 알고있다	모른다	대략적으로 알고있다	정확히 알고있다	모른다	대략적으로 알고있다	정확히 알고있다
전체 (1인+비1인)	10,946 (100.0)	3,101 (28.3)	5,921 (54.1)	1,924 (17.6)	5,579 (51.0)	4,511 (41.2)	856 (7.8)	5,221 (47.7)	4,900 (44.8)	825 (7.5)	5,960 (54.4)	4,451 (40.7)	535 (4.9)
1인 가구	전체	492 (40.3)	573 (46.9)	156 (12.8)	761 (62.3)	396 (32.4)	64 (5.2)	666 (54.5)	475 (38.9)	80 (6.6)	734 (60.1)	437 (35.8)	50 (4.1)
	남성	147 (28.8)	272 (53.3)	91 (17.8)	267 (52.4)	210 (41.2)	33 (6.5)	257 (50.4)	210 (41.2)	43 (8.4)	298 (58.4)	188 (36.9)	24 (4.7)
여성	합계	345 (48.5)	301 (42.3)	65 (9.1)	494 (69.5)	186 (26.2)	31 (4.4)	409 (57.5)	265 (37.3)	37 (5.2)	436 (61.3)	249 (35.0)	26 (3.7)
	비1인가구	2,609 (26.8)	5,348 (55.0)	1,768 (18.2)	4,818 (49.5)	4,115 (42.3)	792 (8.1)	4,555 (46.8)	4,425 (45.5)	745 (7.7)	5,226 (53.7)	4,014 (41.3)	485 (5.0)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9) 이웃과 사회참여

- 거주하는 동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 정도와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음
-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인가’란 물음에 응답한 결과는 다음 [표 2-40]과 같음

[표 2-40]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0,946 (100.0)	310 (2.8)	3,285 (30.0)	4,105 (37.5)	2,798 (25.6)	448 (4.1)	2.98	
1인 가구	전체	1,221 (100.0)	46 (3.8)	351 (28.7)	427 (35.0)	333 (27.3)	64 (5.2)	3.01
	남성	510 (100.0)	22 (4.3)	182 (35.7)	195 (38.2)	95 (18.6)	16 (3.1)	2.81
	여성	711 (100.0)	24 (3.4)	169 (23.8)	232 (32.6)	238 (33.5)	48 (6.8)	3.16
비1인가구	9,725 (100.0)	264 (2.7)	2,934 (30.2)	3,678 (37.8)	2,465 (25.3)	384 (3.9)	2.98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구분해 답하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거주지 동네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정도의 평균은 2.98점으로 그리 높지 않았음
- 동네 주민들끼리 가장 잘 알고 지낸다고 동의한 정도가 가장 강한 집단은 여성 1인가구임(3.16점)
- 유사한 맥락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는 문항도 여성 1인가구의 동의 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남(3.25점)

[표 2-41] 동네 사람들끼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 편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0,946 (100.0)	332 (3.0)	2,844 (26.0)	4,426 (40.4)	2,734 (25.0)	610 (5.6)	3.04
1인 가구	전체	1,221 (100.0)	44 (3.6)	270 (22.1)	483 (39.6)	349 (28.6)	75 (6.1)	3.12
	남성	510 (100.0)	23 (4.5)	140 (27.5)	214 (42.0)	114 (22.4)	19 (3.7)	2.93
	여성	711 (100.0)	21 (3.0)	130 (18.3)	269 (37.8)	235 (33.1)	56 (7.9)	3.25
비1인가구		9,725 (100.0)	288 (3.0)	2,574 (26.5)	3,943 (40.5)	2,385 (24.5)	535 (5.5)	3.03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위 [표 2-41]에 나타난 것처럼, 여성 1인가구의 동네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후하고 또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남성 1인가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가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비교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2.93점)
- ‘이웃 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가’란 문항 결과도 여성 1인가구의 이러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음([표 2-42]참조)
- 전체적으로 이웃 간 소통 정도에 대한 평균은 2.87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나, 여성 1인가구의 평균은 3.08점으로 비교 집단 중 가장 높음
- 본 문항에서도 남성 1인가구의 평균이 2.82점으로 비교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및 연결망이 여성에 비해 취약함을 추정할 수 있음

[표 2-42] 이웃 간 소통 정도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보통	약간 이루어지고 있음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5점 평균
전체 (1인+비1인)		10,906 (100.0)	490 (4.5)	3,136 (28.8)	4,901 (44.9)	2,020 (18.5)	359 (3.3)	2.87
1인 가구	전체	1,215 (100.0)	57 (4.7)	267 (22.0)	583 (48.0)	266 (21.9)	42 (3.5)	2.97
	남성	507 (100.0)	29 (5.7)	134 (26.4)	252 (49.7)	82 (16.2)	10 (2.0)	2.82
	여성	708 (100.0)	28 (4.0)	133 (18.8)	331 (46.8)	184 (26.0)	32 (4.5)	3.08
비1인가구		9,691 (100.0)	433 (4.5)	2,869 (29.6)	4,318 (44.6)	1,754 (18.1)	317 (3.3)	2.86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이웃과의 관계나 소통이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여성 1인가구가 취약할 것으로 보임
- [표 2-43]은 세 가지 위기 상황에 대처할 때 타인의 도움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임
- 전체적으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와 ‘낙심,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76.9%와 85.6%로 높았음
-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5.6%로 앞의 두 경우에 비해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었음
- 여성 1인가구는 아픈 경우, 우울한 경우,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가장 적었음

[표 2-43] 사회적 관계 형성과 기대감

(단위 : 명, %)

구분	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할 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때			낙심, 우울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있다	없다	사람수	있다	없다	사람수	있다	없다	사람수	
전체 (1인+비1인)	8,416 (76.9)	2,530 (23.1)	2.08	6,091 (55.6)	4,855 (44.4)	2.85	9,370 (85.6)	1,576 (14.4)	2.77	
1인 가구	전체	797 (65.3)	424 (34.7)	2.03	651 (53.3)	570 (46.7)	2.50	1,021 (83.6)	200 (16.4)	2.57
	남성	326 (63.9)	184 (36.1)	2.05	281 (55.1)	229 (44.9)	2.60	422 (82.7)	88 (17.3)	2.77
	여성	471 (66.2)	240 (33.8)	2.01	370 (52.0)	341 (48.0)	2.43	599 (84.2)	112 (15.8)	2.43
비1인가구	7,619 (78.3)	2,106 (21.7)	2.08	5,440 (55.9)	4,285 (44.1)	2.89	8,349 (85.9)	1,376 (14.1)	2.80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등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지역 사회 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은 결과는 다음 [표 2-44]와 같음

[표 2-44] 1인가구 주민참여 정책활동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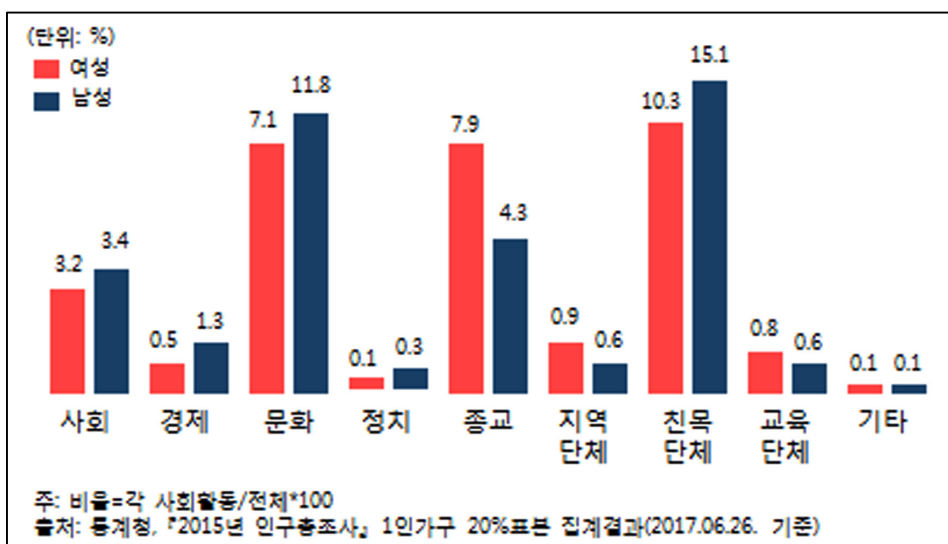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혀 참여할 의향이 없다	소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21(100.0)	218(17.9)	444(36.4)	227(18.6)	332(27.2)
남성	510(100.0)	107(21.0)	166(32.5)	106(20.8)	131(25.7)
여성	711(100.0)	111(15.6)	278(39.1)	121(17.0)	201(28.3)

주: 1인가구에 한함

자료: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물음에 대해 남성 1인가구의 응답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 1인가구는 1인가구로서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8%로 여성 1인가구(17.0%)보다 높았음
- 그러나 남성 1인가구는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남
- 1인가구의 참여 의향은 '잘 모르겠다'가 27.2%로 '소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이나 참여적 해결에 대한 인식 혹은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성별로 1인가구의 사회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여성은 종교 관련 활동에 남성보다 적극적이고, 남성은 사회 및 문화와 친목단체, 정치단체 등에서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2-7] 1인가구의 성별 사회활동 현황

- 20세 이상 1인가구 남녀 중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여성은 75.3%, 남성은 72.0%로 집계되었다.

3장

대전지역 1인가구의 유형

1. 군집분석
2. 군집분석 결과: 유형의 특성

3장 대전지역 1인가구의 유형

1. 군집분석

1) 분석방법

- 본 연구는 1인가구 유형화 작업을 위해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함
- ‘2단계 군집분석(Two-Step Cluster Analysis)’은 군집분석에 사용될 변수가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가 혼합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형화 방법으로, 2 단계 군집분석에서 개체간 거리는 로그-우도(log-likelihood) 또는 유클리디안(Euclidean) 거리에 따라 계산되는데, 자료가 범주형을 포함하는 경우 로그-우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허명희, 2017)
- 로그-우도 측도 사용 시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가 계산되며 이 때 연속형 변수의 경우 정규분포, 범주형 변수의 경우 다항분포로 계산된다고 가정하며 모든 변수를 독립변수로 가정함(Norusis, 2003)
- 또한 2단계 군집분석의 경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혹은 Schwarz의 BIC(Bayesian inference criterion)에 기초하여 최적 군집수 산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즉 연구자가 사전적으로 군집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Huang & Han, 2008; Lepp et al., 2015; Okazaki, 2006; 김영두, 2014 재인용), Norusis(2003)에 의하면 Schwarz의 BIC 기준에 의해 군집수가 결정될 경우 가장 낮은 BIC 값을 갖는 군집이 가장 좋은 군집 모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BIC의 변화량과 군집거리의 변화정도가 최적의 군집수 결정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음(윤우식 외, 2009)
- 본 분석에서는 군집수 산출을 위해 BIC를 사용하였으나 전체 대상의 경우 BIC 사용 시 군집 수가 총 3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유형 간 비교가

어려워, 고정 수를 지정해 총 6개 유형으로 구분함

- 여성 1인가구의 경우 BIC를 사용하여 (군집 수 지정 없이) 총 4개 유형의 군집이 자동 산출됨
- 통계프로그램은 SPSS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분석함
-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는 1인가구 현황과 특성 반영을 위해 혼자 사는 이유, 1인가구 예상 지속 기간, 가계부담항목, 건강, 여가, 안전, 이웃으로 구성하였고 이외에 1인가구를 위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 특성을 추가함
- 군집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총 17개로 [표 3-1]와 같음

[표 3-1] 군집분석에 사용된 1인가구 변수

구분	변수	변수 유형	변수설명
I. 1인가구 주요 변수	혼자 사는 이유	범주형	1. 직장·구직때문에 2. 학업때문에 3. 건강상의 문제 4. 가족 간 불화 5. 사별 6. 기타
	1인가구 예상 지속 기간	범주형	1. 3년 이하 2. 4년 이상 10년 이하 3. 앞으로 계속 지속 4. 잘 모르겠다
	가계부담항목	범주형	1. 의생활비 2. 식생활비 3. 주생활비 4. 의료비 5. 교육비 6. 교통 및 자동차 유지비 7. 공공서비스비 (도시·가스·전기·수도요금 등) 8. 저축·투자금·개인보험·개인연금 9. 기타

구분	변수	변수 유형	변수설명
I. 1인가구 주요 변수	건강	연속형	1년 동안 의료기관 이용한 횟수
	여가	연속형	1년 동안 관람한 예술행사 횟수 (문학행사·미술·서양음악·전통예술·연극·뮤지컬·무용·영화·대중음악 콘서트 및 연예방송프로그램)
	안전	범주형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 1. 전혀 두렵지 않다 2. 두렵지 않은 편이다 3. 보통 4. 두려운 편이다 5. 매우 두렵다
	이웃	연속형	5점 리커트 척도 사용 - 이웃 간의 소통에 대한 문항으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점부터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5점으로 구성
II. 일반적 특성	성별	범주형	1. 남자 2. 여자
	나이	연속형	조사 시점 나이
	학력	범주형	1. 안받았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4년제 미만) 6. 대학교(4년제 이상) 7. 대학원
	혼인상태	범주형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사별 4. 이혼/별거 5. 기타
	월평균 가구 소득	범주형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600만원 미만 7. 600-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구분	변수	변수 유형	변수설명
II. 일반적 특성	월평균 가구 소비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600만원 미만 7. 600~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직업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10. 군인 11. 기타 12. 학생 13. 주부 14. 무직
	종사상 지위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 무급 가족 종사자 7. 직업 없음
	주거형태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 주택 4. 기타(오피스텔 등)
	주거 점유형태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가 2. 전세 3. 보증부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 5. 무상 및 기타

2) 분석대상

- 2016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응답자 중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분석대상 1인가구는 총 1,221가구인데 이 중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70세 이상은 제외하였고, 군집분석에 사용될 변수의 응답에 무응답한 대상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대상으로 군집분석에 사용된 1인가구는 총 825 가구임
-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2]와 같음

[표 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군집분석

구분		전체		남성		여성	
		N	%	N	%	N	%
성별	남성	404	49.0				
	여성	421	51.0				
나이	20-29세	283	34.3	149	36.9	134	31.8
	30-39세	136	16.5	86	21.3	50	11.9
	40-49세	92	11.2	51	12.6	41	9.7
	50-59세	137	16.6	54	13.4	83	19.7
	60-69세	177	21.5	64	15.8	113	26.8
학력	안받았음	3	.4	0	.0	3	.7
	초등학교	48	5.8	14	3.5	34	8.1
	중학교	89	10.8	33	8.2	56	13.3
	고등학교	233	28.2	103	25.5	130	30.9
	대학(4년제 미만)	123	14.9	63	15.6	60	14.3
	대학교(4년제 이상)	318	38.5	183	45.3	135	32.1
	대학원	11	1.3	8	2.0	3	.7
혼인상태	미혼	453	54.9	252	62.4	201	47.7
	배우자 있음	36	4.4	26	6.4	10	2.4
	사별	200	24.2	66	16.3	134	31.8
	이혼/별거	136	16.5	60	14.9	76	18.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17	26.3	113	28.0	104	24.7
	100-200만원 미만	263	31.9	88	21.8	175	41.6
	200-300만원 미만	256	31.0	142	35.1	114	27.1
	300-400만원 미만	68	8.2	46	11.4	22	5.2
	400-500만원 미만	16	1.9	11	2.7	5	1.2
	500-600만원 미만	4	.5	3	.7	1	.2
	600-700만원 미만	1	.1	1	.2	0	.0

월평균 가구 소비	100만원 미만	416	50.4	185	45.8	231	54.9
	100-200만원 미만	289	35.0	148	36.6	141	33.5
	200-300만원 미만	102	12.4	62	15.3	40	9.5
	300-400만원 미만	13	1.6	5	1.2	8	1.9
	400-500만원 미만	3	.4	2	.5	1	.2
	500-600만원 미만	2	.2	2	.5	0	.0
직업	관리자	10	1.2	6	1.5	4	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9	4.7	19	4.7	20	4.8
	사무 종사자	166	20.1	83	20.5	83	19.7
	서비스 종사자	110	13.3	30	7.4	80	19.0
	판매 종사자	97	11.8	35	8.7	62	14.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	.2	1	.2	1	.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6	6.8	49	12.1	7	1.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6	4.4	30	7.4	6	1.4
	단순노무 종사자	54	6.5	29	7.2	25	5.9
	학생	156	18.9	94	23.3	62	14.7
	주부	35	4.2	1	.2	34	8.1
	무직(은퇴포함)	64	7.8	27	6.7	37	8.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06	49.2	212	52.5	194	46.1
	임시근로자	70	8.5	24	5.9	46	10.9
	일용근로자	34	4.1	23	5.7	11	2.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2.7	9	2.2	13	3.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38	4.6	14	3.5	24	5.7
	직업없음	255	30.9	122	30.2	133	31.6
주거형태	단독주택	105	12.7	51	12.6	54	12.8
	아파트	220	26.7	93	23.0	127	30.2
	연립/다세대 주택	450	54.5	232	57.4	218	51.8
	기타(오피스텔등)	50	6.1	28	6.9	22	5.2
주거 점유 형태	자기집	231	28.0	93	23.0	138	32.8
	전세	133	16.1	60	14.9	73	17.3
	보증부 월세	439	53.2	239	59.2	200	47.5
	보증금 없는 월세	7	.8	4	1.0	3	.7
	무상 및 기타	15	1.8	8	2.0	7	1.7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이	41.72	16.878	39.16	15.937	44.19	17.401	

- 여성의 비율이 51.0%로 남성보다 많으며, 평균연령은 41.72세로 남성 평균연령은 39.16세, 여성평균연령은 44.19세임
- 응답자의 대부분이 20대이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8.5%로 가장 많고, 남성의 45.3%, 여성의 32.1%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임
- 미혼이 54.9%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62.4%, 여성 47.7%가 미혼이며, 여성 응답자의 31.8%가 사별한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200~300만원 미만이 35.1%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100~200만원 미만이 41.6%로 가장 많아, 남성과 여성 간 소득의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월평균 가구소비는 100만원 미만이 50.4%로 가장 많았는데, 남성의 45.8%, 여성의 54.9%가 월평균 100만원 미만 수준으로 소비하고 있음
-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2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 서비스 종사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은 사무종사자, 학생,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순인 데 비해, 여성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 종사자, 학생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 비율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52.5%, 여성의 46.1%가 상용직 근로자로 나타남
- 주거형태는 연립/다세대 주택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57.4%, 여성의 51.8%가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힘
- 주거점유형태는 보증부월세가 53.2%로 가장 많았음
- 군집분석에 활용한 독립변인들의 특성은 다음의 [표 3-3]와 같음

[표 3-3] 1인가구 주요변수 특성

구분		전체		남성		여성	
		N	%	N	%	N	%
혼자 사는 이유	직장구직 때문에	328	39.8	179	44.3	149	35.4
	학업 때문에	171	20.7	102	25.2	69	16.4
	건강상의 문제로	2	.2	0	.0	2	.5
	가족 간 불화로	126	15.3	56	13.9	70	16.6
	사별	196	23.8	66	16.3	130	30.9
	기타	2	.2	1	.2	1	.2
1인가구 예상 지속 기간	3년 이하	163	19.8	91	22.5	72	17.1
	4년 이상 10년 이하	265	32.1	129	31.9	136	32.3
	앞으로 계속 지속	271	32.8	123	30.4	148	35.2
	잘 모르겠다	126	15.3	61	15.1	65	15.4
가계부담 항목	의생활비	50	6.1	19	4.7	31	7.4
	식생활비	377	45.7	171	42.3	206	48.9
	주생활비	206	25.0	112	27.7	94	22.3
	의료비	23	2.8	4	1.0	19	4.5
	교육비	33	4.0	21	5.2	12	2.9
	교통자동차유지비	27	3.3	21	5.2	6	1.4
	공공서비스비 (도시가스전기수도요금 등)	14	1.7	8	2.0	6	1.4
	저축투자금개인보험개인연금	50	6.1	24	5.9	26	6.2
기타	45	5.5	24	5.9	21	5.0	
안전 (야간 보행에 대한 두려움)	전혀 두렵지 않다	142	17.2	86	21.3	56	13.3
	두렵지 않은 편이다	189	22.9	121	30.0	68	16.2
	보통	238	28.8	141	34.9	97	23.0
	두려운 편이다	190	23.0	45	11.1	145	34.4
	매우 두렵다	66	8.0	11	2.7	55	13.1
이웃 간 소통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49	5.9	27	6.7	22	5.2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9	25.3	116	28.7	93	22.1
	보통	406	49.2	200	49.5	206	48.9
	약간 이루어지고 있음	135	16.4	52	12.9	83	19.7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26	3.2	9	2.2	17	4.0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건강	의료기관 이용 횟수 (시 내외 기관 통합)	4.79	4.869	4.29	3.825	5.27	5.657
여가	예술행사 관람 횟수 (미술, 영화, 음악 등 통합)	5.46	5.521	5.75	5.943	5.19	5.076
안전	골목길 야간 보행 시 두려움	2.82	1.198	2.44	1.030	3.18	1.238
이웃	이웃 간 소통 정도	2.85	.872	2.75	.844	2.95	.888

- 혼자 사는 이유로는 직장·구직 때문이 39.%로 가장 많았고, 남성의 44.3%, 여성의 35.4%가 직장관련 이유로 혼자 산다고 응답함
- 남성의 경우 혼자 사는 이유가 직장·구직, 학업 순이었으나 여성은 직장·구직, 사별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임
- 1인가구 예상 지속기간은 앞으로 계속지속 32.8%, 4년이상 10년이하 32.1%순이었으며, 남성은 4년이상 10년이하 31.9%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앞으로 계속 지속이 35.2%로 가장 많음
- 가계부담항목으로는 식생활비가 45.7%로 가장 많았고, 남성의 42.3% 여성의 48.9%가 식생활에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다고 응답함
-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횟수는 평균 4.79회였으며, 남성은 4.29회, 여성은 5.27회로 나타나, 여성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횟수가 더 많았음
- 지난 1년 동안 관람한 예술행사(문학, 미술, 서양·전통·대중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의 총 횟수는 (전혀 관람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해) 평균 5.46회였으며, 남성은 5.75회, 여성은 5.19회로 나타남
-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해 평균 2.82점(높을수록 두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2.44점, 여성은 3.18점으로 여성의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웃 간의 소통에 대해 2.85점(높을수록 소통이 잘됨)의 평균이 나타났으며, 남성은 이웃 간 소통의 점수를 평균 2.75점, 여성은 2.95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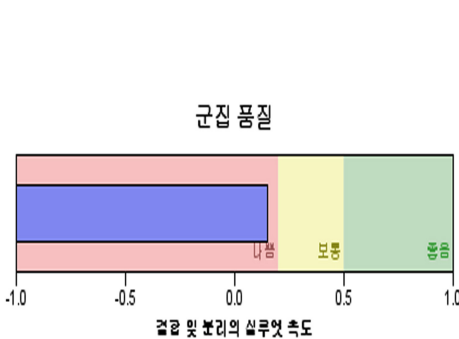
2. 군집분석 결과: 유형의 특성

1) 1인가구 유형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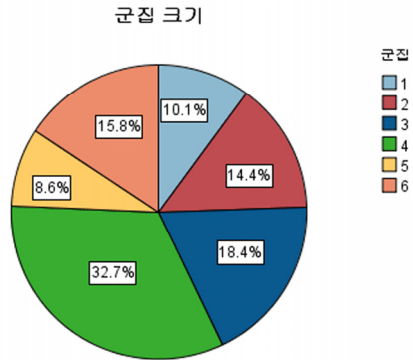
- 군집분석결과 대전시 거주 1인가구는 총 6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음 ([표 3-4]참조)
- 군집의 기준으로 사용된 17개 변수의 변별력 혹은 예측력(predictor

importance=1)¹²⁾은 혼자 사는 이유 1.00, 직업 .98, 나이 .97, 혼인상태 .96, 월평균 가구 소득 .51, 종사상 지위 .51, 학력 .46, 여가 .20, 주거 점유형태 .18, 월평균 가구 소비 .17, 가계부담항목 .15, 1인가구 예상 지속 기간 .12, 주거형태 .11, 건강 .09, 이웃 간 소통 .05, 안전 .03, 성별 .03의 순서로 나타남

- 6개의 군집으로 나뉜 본 군집의 크기와 군집 구조의 품질을 아래 그림으로 살펴보면, 품질은 보통에 가까운 나쁨¹³⁾으로, 크기는 전체 1인가구의 32.7%를 차지하는 군집에서 8.6%를 차지하는 군집으로 나타남



[그림 3-1] 1인가구 군집 품질



[그림 3-2] 1인가구 군집 크기

- 아래 [표 3-4]를 통해 6개의 군집에 속한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음

12) '입력 중요도' 혹은 '예측 중요도'는 군집분석 결과에서 변인별로 전체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렬되며, 크기가 같은 열이 있을 경우 군집 번호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됨. 중요도는 분석 결과 셀 배경에 음영 색상으로 표시되어 음영이 어두울수록 강한 변별력 혹은 예측의 중요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음.

13) BIC는 3개의 군집만을 산출해, 6개로 군집 수를 설정하고 군집 간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군집 구조의 품질이 저하된 측면이 있음

[표 3-4] 전체 1인가구 군집 유형화

구분	군집 4	군집 3	군집 6	군집 2	군집 1	군집 5
크기	32.7% (270)	18.4% (152)	15.8% (130)	14.4% (119)	10.1% (83)	8.6% (71)
혼자 사는 이유	직장·구직 때문에 (96.7%)	가족 간 불화로 (78.9%)	학업 때문에 (97.7)	사별 (97.5%)	사별 (95.2%)	학업 때문에 (57.7%)
직업	사무 종사자 (45.9%)	서비스 종사자 (24.3%)	학생 (98.5%)	단순노무 종사자 (28.6%)	무직 (60.2)	학생 (39.4%)
나이	34.39	52.20	22.02	60.49	65.37	24.18
혼인상태	미혼 (85.2%)	이혼/별거 (82.9%)	미혼 (99.2%)	사별 (100.0%)	사별 (95.2%)	미혼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300만원 미만 (60.0%)	100~200만원 미만 (42.1%)	100만원 미만 (99.2%)	100~200만원 미만 (57.1%)	100만원 미만 (63.9%)	100~200만원 미만 (98.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89.3%)	상용근로자 (53.9%)	직업없음 (98.5%)	상용근로자 (49.6%)	직업없음 (97.6%)	직업없음 (39.4%)
학력	대학교 (4년제 이상) (44.8%)	고등학교 (56.6%)	대학교 (4년제 이상) (89.2%)	고등학교 (53.8%)	초등학교 (42.2%)	대학교 (4년제 이상) (80.3%)
여가 (관람횟수)	6.90	3.32	9.07	1.79	0.77	9.62
주거 점유형태	보증부 월세 (64.4%)	보증부 월세 (39.5%)	보증부 월세 (86.9%)	자기집 (67.2%)	자기집 (67.5%)	보증부 월세 (88.7%)
월평균 가구 소비	100~200만원 미만 (46.7%)	100~200만원 미만 (44.1%)	100만원 미만 (99.2%)	100만원 미만 (53.8%)	100만원 미만 (90.4%)	100~200만원 미만 (60.6%)
가계부담 항목	식생활비 (42.2%)	식생활비 (46.1%)	식생활비 (48.5%)	식생활비 (65.5%)	식생활비 (50.6%)	주생활비 (77.5%)
1인가구 예상 지속 기간	4년 이상 -10년 이하 (34.8%)	앞으로 계속 지속 (41.4%)	4년 이상 -10년 이하 (47.7%)	앞으로 계속 지속 (58.8%)	앞으로 계속 지속 (68.7%)	4년 이상 -10년 이하 (56.3%)
주거형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59.6%)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40.1%)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89.2%)	아파트 (44.5%)	아파트 (50.6%)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81.7%)
건강 (의료기관 이용횟수)	3.11	5.26	3.35	6.46	9.12	4.89
이웃 간 소통	2.77	2.80	2.74	3.11	3.43	2.38
안전 (야간 골목길 보행 두려움)	보통 (28.1%)	보통 (28.9%)	보통 (43.8%)	전혀 두렵지 않다 (31.9%)	두려운 편이다 (37.3%)	두렵지 않은 편이다 (28.2%)
성별	남성 (61.1%)	여성 (57.2%)	남성 (59.2%)	여성 (63.0%)	여성 (72.3%)	여성 (57.7%)

- 전체 1인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으로는 ‘혼자 사는 이유’, 직업’, ‘나이’, ‘혼인상태’가 중요하며, ‘성별’이나 ‘안전’, ‘이웃 간 소통’ 등은 낮은 변별력을 가지고 있음
- 전체 1인가구의 32.7%를 차지하는 군집 4(젊은 사무직) 소속 1인가구는 “직장 때문에” 혼자 사는 30대 사무직 종사 남성으로, 미혼이 85.2%에 달하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다른 군집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높은 특성이 있음
- ‘젊은 사무직’ 군집은 89.3%가 상용직 근로자로 안정적 직업생활을 하고 있고, 20대의 타 군집을 제외하면 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6.90회로 상당히 높은 편임
- 연립/다세대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젊은 사무직’ 1인가구는 지속 예상 기간을 10년 이하로 잡고 있어, 곧 가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이웃들과 소통하는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1인가구의 18.4%를 차지하는 군집 3(돌아온 중년) 소속 1인가구는 “가족 간 불화 때문에” 혼자 사는 50대 초반의 일하는 여성으로, 서비스직 종사자가 비교적 많고(24.3%), 이혼과 별거 비율이 82.9%에 달하는 특성을 보임
- 고졸의 상용직 근로자인 ‘돌아온 중년’ 여성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상당수가 월세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월세 비율이 39.5%로 다른 군집에 비해 낮은 편이며, 앞으로도 계속 1인가구로 살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돌아온 중년’ 군집은 특히 의료기관을 연평균 5.26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노령층에 비해서는 병원 이용 횟수가 적지만,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여성들의 이웃 간 소통은 젊은 1인가구에 비해 조금 더 원활한 것으로 보임
- 전체 1인가구의 15.8%를 차지하는 군집 6(청년 남성) 소속 1인가구는 98.5%가 학생으로, “학업 때문에” 혼자 살고 있으며, 평균 나이 22.02세의 남성이 주(59.2%)를 이루고 있음
- ‘청년 남성’ 군집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예술활동 관람 경향(연 평균 9.07회)을 보이고 있으며, 1인 가구로 거주하는 기간을 10년 이하로 보고 있어, 학교생활이 끝나면 거주를 옮길 가능성이 높음을 드러내고 있음

- ‘청년 남성’ 군집의 1인가구는 건강한 편이고, 골목길 안전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으나, 이웃 간 소통 정도는 낮은 편임
- 전체 1인가구의 14.4%를 차지하는 군집 2(일하는 노년)에 속한 1인가구는 ‘배우자와 사별했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97.5%로 절대 다수이며, 평균 연령 60.49세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63%)이 다수를 차지함
- ‘일하는 노년’ 군집에 속하는 1인가구는 상용직 근로자 비율이 높지만(49.6%) 단순 노무직(28.6%)에 종사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예술활동 관람 회수가 다른 군집의 1인가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특징을 보임
- ‘일하는 노년’ 1인가구는 아파트 형태의 자기 집에 사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67.2%), 병원도 자주 다니고 (연 평균 6.46회),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려는 양상을 보임
- 전체 1인가구의 10.1%를 차지하는 군집 1(일하지 않는 노년)에 속하는 1인가구는 평균연령이 가장 높고(65.37세), 역시 ‘사별했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으며(95.2%),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음(60.2%)
- ‘일하지 않는 노년’ 1인가구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지만,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가장 많고(9.12회), 식생활에 지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50.6%), 가구의 삶의 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군집 중 가장 크기가 작은 군집 5(청년 여성)는 모두 미혼으로 “학업 때문에” 혼자 사는(57.7%) 여학생이 주를 이루는(57.7%)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음
- ‘청년 여성’ 1인가구는 ‘청년 남성’ 1인가구와 유사하게 대졸 학력을 가졌지만 직업이 없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39.4%), 월세에 살고 있으면서 ‘주생활비’를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특징을 보임
- ‘청년 여성’ 1인가구는 예술활동 관람을 다른 군집 1인가구보다 가장

자주 하고 있고(연 9.62회), 의료기관 이용은 젊은 남성 1인가구보다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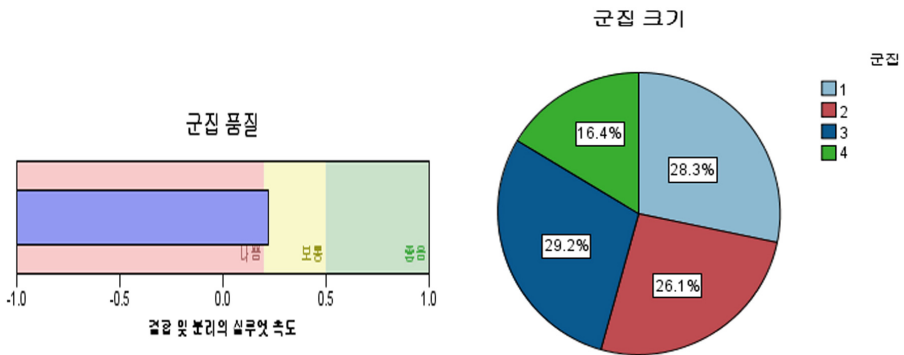
○ 전체 1인가구를 군집분석하여 군집의 크기별로 유형을 정리해 그 특징을 요약해 제시하면 다음 [표 3-5]와 같음

[표 3-5] 1인가구 유형의 특성 요약

군집유형	주요 특징
군집 4 젊은 사무직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에 종사하는 미혼의 30대 초중반 남성 • 소득이 비교적 높고, 고용이 안정적 • 여가생활을 즐기고, 건강한 편 • 이웃과의 소통에는 소극적
군집 3 돌아온 중년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40대 후반 50대 초반 여성 • 고졸의 서비스직 종사 • 소득이 낮고, 여가생활을 잘 못 즐기는 편 • 건강에 대한 유의 필요하고 이웃 관계 소원한 편
군집 6 청년 남성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다니는 20대 초반 미혼 남성 • 소득도 적고, 직업도 없으나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 • 건강한 편
군집 2 일하는 노년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별하고 자기 집에 혼자 사는 50대 후반 60대 초반 여성 • 상용직이지만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향 • 여가활동은 거의 없으며,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함
군집 1 일하지 않는 노년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별하고 자기 집에 혼자 사는 60대 후반 여성 • 직업이 없고 소득도 낮음 • 여가생활 거의 없으나 이웃과의 소통은 가장 원활한 편 • 의료기관 방문이 잦고 식생활에 많은 비용 투입하고 있어 삶의 질 낮은 편
군집 5 청년 여성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 없는 20대 초반 미혼 여성 • 소득이 낮아 주생활비 부담이 가장 큼 • 여가생활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

2) 여성 1인가구 유형과 특성

- 여성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BIC(Bayesian inference criterion)에 기초하여 최적 군집 수를 도출한 결과 총 4개의 유형이 도출됐음
- 군집의 기준으로 사용된 변수의 변별력 혹은 예측력(predictor importance=1)은 혼자 사는 이유 1.00, 나이 .86, 혼인상태 .65, 직업 .59, 학력 .38, 종사상 지위 .24, 월평균 가구 소득 .20, 여가 .20, 주거 점유형태 .16, 1인가구 예상 지속 기간 .10, 월평균 가구 소비 .08, 주거형태 .08, 건강 .06, 이웃 간 소통 .04, 가계부담항목 .04, 안전 .01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군집 구조의 품질은 이전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보다 향상되었으며, 여성 1인가구의 29.2%를 차지하는 군집부터 16.4%를 차지하는 군집까지 4개의 군집 유형이 도출됨



[그림 3-3] 여성 1인가구 군집 품질 [그림 3-4] 여성 1인가구 군집 크기

- 여성 1인가구 군집의 유형 및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3-6]와 같음

[표 3-6] 여성 1인가구 군집 유형화

구분	군집 3	군집 1	군집 2	군집 4
크기	29.2% (123)	28.3% (119)	26.1% (110)	16.4% (69)
혼자 사는 이유	직장·구직 때문에 (97.6%)	사별 (96.6%)	가족 간 불화로 (62.7)	학업 때문에 (95.7%)
나이	31.10	63.66	51.77	21.84

혼인상태	미혼 (94.3%)	사별 (99.2%)	이혼/별거 (66.4%)	미혼 (98.6)
직업	사무 종사자 (54.5%)	주부 (24.4%)	판매 종사자 (32.7%)	학생 (89.9%)
학력	대학교 (4년제 이상) (52.8%)	중학교 (36.1%)	고등학교 (63.6%)	대학교 (4년제 이상) (87.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85.4%)	직업없음 (47.9%)	상용근로자 (56.4%)	직업없음 (89.9%)
월평균 가구 소득	200-300만원 미만 (49.6%)	100-200만원 미만 (61.3%)	200-300만원 미만 (42.7%)	100만원 미만 (75.4%)
여가 (관람횟수)	7.57	1.28	4.20	9.26
주거 점유형태	보증부 월세 (72.4%)	자기집 (68.9%)	자기집 (41.8%)	보증부 월세 (84.1%)
1인가구 예상 지속 기간	4년 이상 -10년 이하 (45.5%)	앞으로 계속 지속 (61.3%)	앞으로 계속 지속 (44.5%)	4년 이상 -10년 이하 (50.7%)
월평균 가구 소비	100-200만원 미만 (44.7%)	100만원 미만 (79.0%)	100-200만원 미만 (50.0%)	100만원 미만 (85.5%)
주거형태	연립/다세대 주택 (69.1%)	아파트 (52.9%)	연립/다세대 주택 (42.7%)	연립/다세대 주택 (84.1%)
건강 (의료기관 이용횟수)	3.20	8.12	5.40	3.81
이웃 간 소통	2.75	3.34	2.96	2.62
가계부담항목	식생활비 (43.9%)	식생활비 (58.0%)	식생활비 (48.2%)	식생활비 (43.5%)
안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두려운 편이다 (39.0%)	두려운 편이다 (39.5%)	보통 (30.0%)	두려운 편이다 (31.9%)
행정동*	서구 갈마2동 유성구 온천2동 대덕구 송촌동 서구 둔산2동 동구 용운동 서구 괴정동 중구 은행선화동 유성구 신성동 동구 용진동 유성구 구죽동 대덕구 오정동	중구 산성동 대덕구 범1동 서구 갈마2동 동구 판암2동 동구 자양동 동구 산내동 동구 성남동 중구 중촌동	동구 자양동 중구 문화1동 동구 용전동 서구 갈마2동 유성구 노은2동 중구 석교동 중구 유천2동 서구 갈마1동 유성구 구죽동 대덕구 중리동	유성구 온천2동 서구 도마2동 대덕구 중리동 동구 흥도동 유성구 진잠동 동구 자양동 동구 가양2동 서구 복수동 서구 탄방동

주: 각 군집별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를 파악하고, 군집별 응답자의 거주 행정동 79개 동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뒤, 3%이상 차지하는 행정동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별, 정리해 제시함

- 여성 1인가구의 29.2%를 차지하는 군집 3(사무직 미혼)에 속한 1인가구는 “직장이나 구직 때문에”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평균 연령 31.10세의 미혼 여성(94.3%)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서구갈마2동과 유성구 온천2동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 ‘사무직 미혼’ 1인가구는 사무직에 종사(54.5%)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상용직 비율 85.4%),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많음(52.8%)
- 월평균 소득이 적지 않아(200~300만원 미만, 49.6%) 여가생활도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인데 예술활동 관람도 연 평균 7.57회하고 있음
- 연립/다세대주택(69.1%)에 월세로 사는 경우가 가장 많고(72.4%), 식생활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방문은 군집 중 가장 적어 건강한 편이라 볼 수 있음
- 앞으로 1인가구로 지내는 기간이 10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무직 미혼’ 1인가구는 이웃과의 소통이 그리 원활하지는 않은 편임
- 여성 1인가구의 28.3%를 차지하는 군집 1(노령의 주부)에 속한 1인가구는 “배우자와 사별했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고, 주부가 비교적 많으며(24.4%), 평균 연령은 63.66세로 노령에 접어들고 있고, 중구 산성동과 대덕구 범1동, 동구 판암2동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중졸이 많아 학력이 낮은 편이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47.9%), 월평균 소득도 100만원대로 낮은 편임
- 아파트 형태의 자기집에 사는 경우가 많은 ‘노령의 주부’ 1인가구는 여가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반면, 식생활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58.0%)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연평균 8.12회로 군집 중 가장 잦아 건강이 염려되며, 삶의 질도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노령의 주부’ 1인가구는 앞으로 계속 혼자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웃과의 소통은 다른 군집들에 비해 가장 활발한 편임
- 여성 1인가구의 26.1%를 차지하는 군집 2(돌아온 중년)에 속하는 1인가구는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혼자 살게 된 경우가 많고(66.4%), 평균

연령은 51.77세의 중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구 자양동과 중구 문화1동, 동구 용전동에 많이 거주함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63.6%) 판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32.7%), 상용직(56.4%)으로 고용은 안정된 편이며 월평균 소득도 사무직과 유사하게 비교적 높은 편임
- 연립/다세대 주택(42.7%)을 자가 소유한 경우가 많고(41.8%), 예술활동 관람은 연 평균 4.20회로 노령층보다는 높으나, 의료기관 방문이 적지 않아 건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여성 1인가구의 16.4%를 차지하는 군집 4(대학생 미혼)에 속하는 1인가구는 “학업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95.7%)이며, 미혼이고(98.6%), 평균연령 21.84세의 대학생(89.9%)으로, 주로 유성구 온천2동과 서구 도마2동, 대덕구 중리동 등에 거주함
- 직업이 없어서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에 불과하나, 여가활동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예술활동 관람 연 평균 9.26회), 연립/다세대 주택(84.1%)에 월세로(84.1%)사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식생활에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어 부담스러우나, 건강한 편이고, 이웃과의 소통은 그리 활발하지 않음

[표 3-7] 여성 1인가구 집단의 특성 요약

군집유형	주요 특징
<p>군집 3 사무직 미혼 여성 1인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에 종사하는 30대 미혼 • 대졸이며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여가생활도 적극적인 편 • 연립/다세대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고, 이웃과의 소통엔 소극적인 편 • 서구 갈마2동, 유성구 온천2동, 대덕구 송촌동 등
<p>군집 1 노령의 주부 여성 1인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별하고 직업이 없는 60대 주부 • 학력이 낮고, 소득도 적은 편이며 여가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임 • 자기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과 삶의 질이 염려되나 이웃과의 소통은 가장 활발함 • 중구 산성동, 대덕구 법1동, 동구 판암2동 등
<p>군집 2 돌아온 중년 여성 1인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4,50대 • 고졸의 판매업 종사자이며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바탕으로 여가생활도 하는 편 • 자기 소유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며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 • 동구 자양동, 중구 문화1동, 동구 용전동 등
<p>군집 4 대학생 미혼 여성 1인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다니는 20대 미혼 • 직업이 없고, 월 소득이 적으나 활발하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음 • 연립/다세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이웃과의 소통에는 가장 소극적임 • 유성구 온천2동, 서구 도마2동, 대덕구 중리동 등

4장

대전시 여성 1인가구의 정책 현안

1. 1인가구 정책 현안 간담회 결과 분석
2. 1인가구 지원 정책 제안

4장 대전시 여성 1인가구의 정책 현안

1. 1인가구 정책 현안 간담회 결과 분석

1) 간담회 개요

- 대전지역 1인가구 현황과 유형적 특성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1인가구 관련한 정책 현안 발굴과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및 1인가구주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함
- 주택 및 도시계획, 사회복지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대전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시 여성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2,30대 1인가구주들이 참여한 간담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참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대전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시 여성정책 담당자 ■ 대전지역 거주 청년 1인가구주 5인
회의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간담회: 2017년 9월 7일 ■ 1인가구주 간담회: 2017년 9월 14일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개최 목적 및 연구 결과 공유 ■ 여성 1인가구 유형별 특성과 거주지 분석 결과 공유 ■ 1인가구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정책 현안 논의 ■ 여성 1인가구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정책 현안 논의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주택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보건과 안전 정책 등에 대한 논의

[그림 4-1] 1인가구 정책 현안 간담회 개요

2) 간담회 결과 분석과 정책 현안

-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청년 1인가구주들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연령과 성, 혼인과 거주상태 및 지원 수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거주 유형에 따른 행정동 밀집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을 제시함

[표 4-1] 1인가구 정책 현안 간담회 논의 결과 요약

구분	참여자에 따른 구분	
	전문가 집담회 논의 내용	청년 1인가구주 논의 내용
1인가구의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로움과 주거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감과 자유로움의 공존
대전지역 1인가구의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대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청년 1인가구
여성 1인가구의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 • 취약한 위기관리 능력 	
주거·주택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대비 높은 주거비용 • 주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주거환경의 1인가구 밀집지역 • 정확한 거주지 및 주택에 대한 정보 필요 • 임대거래, 주거지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성
사회적 안전망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감, 식생활 등 건강관리의 중요성 • 다양해진 젠더폭력 형태에 대한 예방책 강구 • 중년 1인가구를 위한 단기 케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택배보관함 수요 증가 • 신고 대응 체계 및 범죄 예방 조치(CCTV 설치 등)에 대한 적극성 필요
공유 사회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와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년 1인가구에 대한 관심 필요 • ‘도심형 공동생활가구’ 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공동생활거주 실험의 필요성 •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 동네 푸드뱅크, 공유 차량 이용 활성화 • 거주자 정보 공유를 통한 입주자 간 신뢰성 확보

-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청년 1인가구주들은 1인가구의 가장 큰 특징으로 혼자 거주하는데 따르는 외로움을 꼽았으나, 청년 1인가구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1인가구 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단점일 수 있으나 독립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자유로움과 공존하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함
-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1인가구 형성(부모세대로부터의 독립)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전지역 1인가구의 1/3이 20대 이하인 점에 간담회 참여자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대전지역에 거주하게 된 청년 1인가구가 앞으로도 꾸준히 1인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따라서 이들의 생활과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나 비1인가구와 다른 특수성은 범죄 피해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과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대처 행동에 한계가 크다는 점임
-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사례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는데 집담회 참여자들은 공감했으며,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공감도 컸음
- 범죄 예방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과 CCTV 설치 위치, CEPTED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초고속 자가정보 통신망 구축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응용서비스 호환과 활용을 제안함
- 주거·주택 부문의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소득대비 주거비용이 상당한 1인가구를 생각할 때,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논의되었으며, 공간 구성과 설치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등 두 가지 차원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됨
- 1인가구 밀집 주거지는 주거지 관리가 되지 않아 청결하지 않고, 범죄 위험성이 높으며, 주거민은 주거지 및 이웃에 무관심하다는 ‘편견’이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다는 점이 논의됨

- 1인가구, 특히 청년층 1인가구는 이웃과 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매우 적고 소통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같은 건물이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관련한 정보를(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서로 공유하고 위기 발생 시 서로 돕거나(거주자들 간 비상연락망 구축) 공동생활에 따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기초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청년 1인가구주의 경우 주택 임대 시 ‘임대차보호법’ 등 계약 관련 정보에 취약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어, 주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주택임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안전망 부문**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울감 등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청년 1인가구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될 수 없어 건강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대상임을 강조함
- 안심무인택배함에 대한 이용자들의 호응이 좋고 도심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각종 장비, 통신망 등을 이용한 신종 젠더폭력범죄가 늘어가고, 청년 여성 1인가구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 개인이 인지했을 때 경찰을 비롯한 범죄 예방·대응 조직(지역방범대 등)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
- **공유 사회 부문**은 1인가구 시대에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대응 방안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임
- 1인가구의 식생활과 건강관리, 가구를 비롯한 생활용품 수요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통한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요구됨
-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거주지 (동네) 푸드뱅크 운영, 가구, 공구 등 생활용품을 빌려 쓸 수 있는 공유네트워크 또는 생활물품 공유센터 운영, 자동차를 공유할 수 있는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이 제안됨
- 농촌의 노인층을 중심으로 공동생활가정의 도심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최근 서울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거공간, 셰어하우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뜻이 맞는 개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동주거형태가 급속히 늘고 있음
- 연령대별 셰어하우스, 세대 통합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공동주택과 주거공간 조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2. 1인가구 지원 정책 제안

1) 주거와 주택 부문 지원 정책

(1) 주제별 · 세대통합형 셰어하우스 공급과 운영

- 30%에 달하는 대전지역 청년 1인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저렴하지만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임
-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셰어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임대형(비영리 민간임대), 공공임대 등의 형태로 셰어하우스를 공급하고 운영할 필요 있음
- 서울도시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민간단체 등이 자가 혹은 임대 방식으로 공동체주택 공급을 주도해 왔으나, 최근 민간영역에서도 셰어하우스 운영 플랫폼을 출시하고 운영과 관리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이 확보된 셰어하우스 제공이 필요함
- 공동주거 · 주택의 점유 형태는 ‘자가소유형’ ‘사회임대형’ ‘공공임대형’이 있을 수 있음(남원석 · 박은철, 2015)
- ‘자가소유형’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자가 형태로 거주하는 유형이며, ‘사회임대형’은 민간이 건설, 매입한 것은 같으나,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유형이며, ‘공공임대형’은 공공이 주택을 건설,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유형임(남원석 · 박은철, 2015: 9)
- 이 연구에서는 대전시가 주도하는 모델을 염두한 ‘공공임대형’에 기반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표 4-3] 주제별 · 세대통합형 세어하우스의 목적과 주요 내용

구 분	목 적	특징과 주요 내용
주제별 세어하우스	생활습관과 연령 등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한 주거 공간 제공과 생활문제 공동 해결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이 있는 1인가구, 예술활동을 하는(관심 있는) 1인가구, 요리하는 1인가구 등 생활양식의 공통분모에 따라 공동 주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입주자 공모 • 노후주택이나 건물,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개·보수작업을 거친 뒤 세어하우스를 운영할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임대, 운영하도록 함 • 입주자 선정 시 다양한 사회적 약자 우선 정책 도입 가능(소득, 장애 등 기준선 마련) •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운영하여 공동주거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필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여성 세어하우스	취·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안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여성 취업준비자 또는 창업준비자 대상(입주자 선정 시 여성 취·창업준비자 우선 배정) •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 1인가구를 대상 • 지하철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편리 지점(지하철역에서 거리 300m 이내, 도로너비 30m 이상, 버스전용차선 유무 등 점검) • 2,30대 여성 1인가구가 밀집한 동구 자양동, 중구 대흥동, 서구 갈마2동, 탄방동, 유성구 온천 1,2동, 대덕구 오정동 등 • 1층에 공유 부엌과 도서관을 마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세대통합형 세어하우스	독거노인과 주거 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계하여 노인에게는 독거에 따른 고립감 해소와 청년에게는 양질의 주거지 확보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서울시 노원구에서 시작된 ‘한지붕 세대공감’사업 • 신청한 노인은 주거환경 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 받고, 대학생은 무보증금(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으로 학교와 근접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게 됨 • 개인 공간(프라이버시) 확보 및 공동생활에 대한 세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전 상호 계약 내용 확인 필요

(2) '우리집 코디네이터'의 필요성과 역할

- 셰어하우스의 성공적 유지는 한지붕 아래 공동 거주하는 입주민 간 소통과 가치관 준수 그리고 갈등과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율 체계임
- 3인 이상이 공동 거주하는 주택에는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줄 사람이 필요하며, 셰어하우스의 가치 공유,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 준수, 입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셰어하우스 설립 후 운영 시 입주자 중 1인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게끔 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코디네이터 역할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공동체주택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이 셰어하우스에 집주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공공성에 기반 한 셰어하우스 설립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주체 및 입주자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의무화하는 등 하여 공동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사회적 안전망 부문 지원 정책

(1) 단기케어시스템·정신건강 프로그램 구축

-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인가구로 살아가는 데 가장 불편한 점이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으로 나타남
- 특히 중년 1인가구는 유병률이 높는데 비해 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응급 상황시 필요한 의료 지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에 한정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노인층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년 1인가구를 위한 일시 건강케어 시스템이 필요함(박 건·김연재, 2016)

[표 4-3] 단기케어시스템 목적과 주요 내용

구 분	목 적	특징과 주요 내용
1인가구 무료 간병인 사업	돌봄 가족이 없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시 간병인(의료 보조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인 지원 서비스에 1인가구 지원 추가 • 보호자가 없어서 의료 서비스(시설) 이용이 어려운 1인가구 지원 • 함께 병원가기, 1-2일간 간병 등 기초 의료 서비스 제공

-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1인가구의 정신 건강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자살예방과 우울증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가족을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1인가구의 고립감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위대한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2)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한 U-CITY 안전성 강화

- 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대수 증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수요가 높음
- 대전의 대표적인 1인가구 밀집지역인 서구 월평동과 갈마동 유성구 온천동 일대는 여성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대학생 등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음
- 최근 고화질 CCTV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방범용 CCTV를 비롯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지하보도, 교통단속 CCTV 간 연계가 부족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가통신망 구축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도 기여하겠지만, 공공Wifi Zone과 사물인

터넷 확대, 방법과 교통단속을 위한 CCTV 회선 연계가 고속으로 가능하게 돼 안전한 도시생활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사업은 범죄와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등 다양한 도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임
- 대전시도 2014년 U-CITY 통합센터를 개소하고 CCTV 관제를 비롯해 범죄 및 재난 상황 대응에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연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음
- 112와 119의 연계, 방범 CCTV와 교통 CCTV의 연계는 범죄 및 재난 대응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여성 1인가구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동통신사와 연계하여 CCTV 영상을 경찰상황실에 제공하는 ‘5대 연계서비스’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범죄행위 의심 신고에 대한 수사과 조치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자료: 아시아투데이(2017.3.3.)

[그림 4-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내용

3) 공유 사회 부문 지원 정책

(1) 나홀로 푸드뱅크·소셜 다이닝 운영

- 최근 혼자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식사시간에만 일시적으로 모여 밥만 먹고 헤어지는 모임들이 증가하고 있음
- 1인가구 집담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된 것이 ‘식생활’ 즉, ‘밥 해먹기’ 인 점 역시 함께 밥을 먹는 모임을 확산시키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의 등장을 이끌어냄
- 여전히 식선식품류는 국소포장이 드물어 1인가구는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렵고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쉬움
- 기존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이 식품을 기부하고 이를 소외 계층 혹은 경제적으로 위약한 계층에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 서비스였으나, 1인가구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유지를 위한 신선식품 위주의 푸드뱅크 설립과 운영을 고려해볼만 함

[표 4-4] 나홀로 푸드뱅크 주요 내용

구 분	목 적	특징과 주요 내용
1인가구를 위한 식품 저장과 공유	1인가구 맞춤형 신선식품, 과일류 등을 저장해두고 공유함으로써 건강권 보장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다이닝(social dining)과 병행하여 추진 • 거주지 내 모임 공간 필요 • 신청자를 받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플랫폼 서비스 제공), 코디네이터의 리드로 함께 식사하고 식료품 저장과 공유를 병행 • 기존 저소득층 지원 차원의 푸드뱅크가 저장식품(깡통저장식품)위주였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을 위주로 한 식품 창고를 의미 • 현금 혹은 현물로 채소와 과일 등을 기부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며, 타인을 위해 남겨두기도 함 • 소셜다이닝과 푸드뱅크 운영을 도울 코디네이터 양성과 인센티브가 필요함

- 대전 서구 도마동의 경우 2017년 주민공모사업으로 ‘생활용품 공유센터’가 선정돼 현재 도마1동 경로당 2층에 센터를 개소하고 공구 및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대여하고 있음
- 1인가구의 경우 공구나 캠핑용품 외에도 조리기구나 가전제품, 가구 등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필요한 물건을 빌려써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경험을 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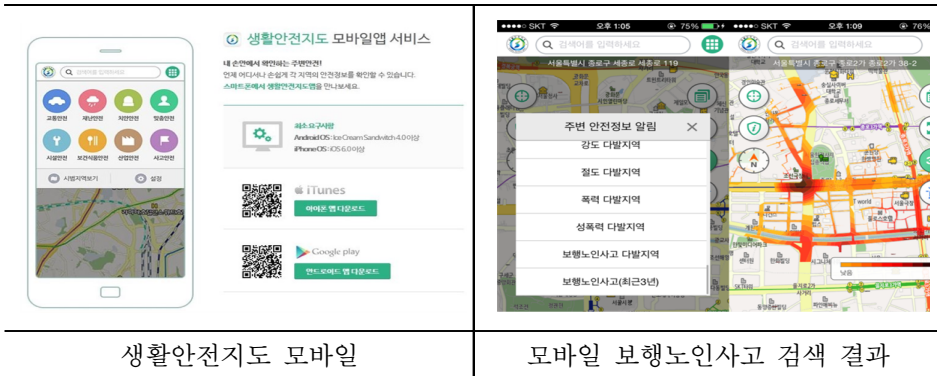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 서구청 블로그(http://blog.naver.com/first_seogu)

[그림 4-3] 서구 도마1동 생활용품 공유센터

- 차량 공유에 대한 수요도 1인가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학생과 2,30대 사이에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카셰어링 (Car-sharing)은 택시업계나 기존 렌트카 사업체와의 갈등이 없지 않으나, 교통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므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대여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계약 시 명기 등의 사항을 관리 감독해야 함

(2) 생활정보·주거지(우리 동네) 정보 공유 서비스

- 청년 1인가구와의 집담회에서 주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안전한 생활,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함
- 대전지역 1인가구의 1/3을 차지하는 20대 이하 청년 1인가구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처음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집을 떠나 대전에서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이 집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임
- 특히 청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주거지에 대한 여러 정보-범죄, 생활편의, 교통 등 여러 변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이러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민안전처는 2016년 1월부터 ‘생활안전지도’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안전정보만을 모아 지도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자료: 소방청 블로그(<http://blog.naver.com/safeppy>)

[그림 4-4] 생활안전지도 모바일앱 서비스 화면

- 국민안전처의 생활안전지도는 치안, 교통, 재난,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지의 안전성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안전처의 안전 정보에 ‘주거지 정보’ 혹은 ‘동네 정보’를 추가하여 안전하고도 쾌적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야 함

- 특히 여성 1인가구는 안심벨의 위치,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정보 등도 매우 필요하므로 안전설치물, 시설, 보호처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

[표 4-5] 우리 동네 정보 모바일앱 주요 내용

구 분	목 적	특징과 주요 내용
1인가구를 위한 거주지 정보 공유	안전과 생활편의 등 종합적인 주거지 정보를 제공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에 처음 이주하는 1인가구 맞춤형 주거 정보 공유 서비스 • 국민안전처의 ‘생활안전지도’를 기본 플랫폼으로 사용 • 안심벨 위치, 폭력 등 피해 대피처, 여성안심병원의 위치,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처 등 주거지(동네) 안전 정보를 중점 제공 • 교통, 재난, 치안 등 카테고리 외 지역 특화 카테고리 추가하여 주거지의 쾌적함에 대한 정보 제공 • 경찰서와 파출소 등 안전지원기관뿐 아닌, 교통편의, 공원 등 주요 생활편의 서비스와 시설 정보를 제공 • 주거지에 대한 리뷰 공람 기능을 추가하여 주거지에 대한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용인시 안심귀가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부산시 안심위치관리서비스 어플

(3) 대학·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공동체 가꾸기

- 대전지역 1인가구 현황의 가장 큰 특징은 20대 청년 1인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임
- 청년 1인가구의 주거지 밀집 현황을 살펴보면 대개 대학가 주변임을 알 수 있고, 학교 주변의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원주민과 (정서적으로도) 분리된 삶을 살고 있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나 책임감 주거환경에 대한 애정 등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주거지, 동네환경,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일시적 거주를 하거나 장기간 거주하지 않다보니 거주지 내 공공질서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그로 인해 쓰레기투기나 주차질서문란, 소음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함
- 주민자치위원회와 대학이 협약을 맺고, 대학 동아리 및 봉사단체, 학생회 등과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대학 내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동구 자양동의 경우, 원주민들과 입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송대학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길거리를 청소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공동체 가꾸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1인가구 밀집지역의 환경이 다소 개선되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함



우송대의 Sol Green Town 발대식

Sol Green Town 등 봉사단 모집 광고

자료: 중앙일보(2015년 5월 7일); 우송대학교 블로그

[그림 4-5] 우송대와 동구주민이 함께하는 Sol Green Town 캠페인

4) 여성 1인가구 군집 유형에 따른 정책 제안

- 앞서 본 연구는 여성 1인가구를 네 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고 각 군집별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거주지 특성을 파악한 바 있음
- 여성 1인가구의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집담회 및 여러 1인가구 지원정책 사례 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른 정책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음

[표 4-6] 여성 1인가구 군집 유형에 따른 정책 제안

군집유형	정책 제안 내용
사무직 미혼 여성 1인가구 (군집유형 #3)	❖ 사업 주제: 안전하고 미래가 있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심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과 대중교통 편리 지점에 위치 - 범죄예방을 위한 현관문 설계와 도어락 시스템 - 안심택배보관함 제공 • 테마가 있는 공동 부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셰어하우스 1층에 입주자 공동 공간 마련 -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보교류 하우스파티, 사무직을 위한 힐링 요리 교실, 공동 서가 등 운영 - 푸드뱅크, 소셜다이닝 운영 • 서구 갈마2동, 유성구 온천2동, 대덕구 송촌동 등
노령의 주부 여성 1인가구 (군집유형 #1)	❖ 사업 주제: 건강하고 즐거운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통합형 셰어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공사 후 다른 세대와 공동 거주 - 건강이상 발생 시 이동통신사와 연계된 긴급 신고 체계 운영 • 1인가구 무료 간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병원 다녀오기, 일시적 긴급 간병서비스 제공 • 중구 산성동, 대덕구 법1동, 동구 판암2동 등
돌아온 중년 여성 1인가구 (군집유형 #2)	❖ 사업 주제: 함께하는 행복한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대학 재학생과 함께하는 동네 청소 - 이웃(1인가구주)과 함께하는 푸드뱅크, 소셜다이닝

군집유형	정책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의료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긴급 간병서비스 제공 • 여성의료생활협동조합 형성 추진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을 주제로 한 협동조합 결성 우선 지원 - 거주지 기반 협동조합 형성 • 동구 자양동, 중구 문화1동, 동구 용전동 등
<p>대학생 미혼 여성 1인가구 (군집유형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주제: 응원하고 도전하는 삶 • 취·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세어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과 대중교통 편리 지점에 위치 - 취·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 공동 도서관에서 정보 교류 및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여성가족원 코워킹공간 활용 우선 부여 • 홈방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경찰서, 민간보안업체와 협약에 의한 저렴한 보안서비스 제공 - 안심택배보관함 제공 • 유성구 온천2동, 서구 도마2동, 대덕구 중리동 등

참고문헌

- 고보혜(2015), <광주지역 여성 1인가구 지원방안연구>, 광주여성재단.
- 김영두(2014), 녹색소비자는 서로 같은 녹색 관련 문제를 경험하는가? - 소비자 의 사결정 접근을 통한 세분 소비자 집단별 녹색 관련 행동-경험 차이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3호, 207-235.
- 김영정·김연재(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시간활용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종숙·배호중(2014),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남원석·박은철(2015),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서울연구원.
- 박건·김연재(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 안 - 노후 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변미리·최정원·박민진·이혁준·김진아(2015),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송영신(2015),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 7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여성가족부(2016b),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이석환·최조순(2016),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 이준우·장민선(2014), <1인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변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장민선(2016), 1인가구 지원에 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21호, 한국법제연 구원.
- 장진희·김연재(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 불안정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경희·남상호·정은지·이지혜·이윤경·김정석·김혜영·진미정(2012), <가족구 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희·황남희·권중돈·박보미(2014),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 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다운·홍형옥·지은영(2015), “세대통합형 하우스세어링에 대한 청년층과 노년 층의 인식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6): 65-75.
- 채성주(2015), <충북지역 1인 가구의 주거실태 분석과 정책 방향>, 충북발전연구원.
- 천현숙·김근용·이운상·이재춘(2016), “해외 공공지원주택 변화 추이와 시사 점”. <국토정책 Brief> No.565, 국토연구원.

- 통계청(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17a), <2016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17b),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통계청 보도자료.
- 하정화 · 김현희 · 박진아(2014), <부산지역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황정임 · 김은지 · 남원석(2013), <여경가구주거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도시지역의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허명희(2017). SPSS Statistics 분류분석. 데이터솔루션.서울.
- Huang, S.-J. & Han, W.-M. (2008),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ftware project duration and risk exposure : A cluster analysis*, Information & Management, 45, pp. 175-182.
- Lepp, A., Li, J., Barkley, J. E., & Salehi-Esfahani, S. (2015),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cell phone use, personality and leisur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3, pp. 210-219.
- OECD(2011),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A Synthesis Report*.
- Okazaki, S. (2006), *What do we know about mobile Internet adopters? A cluster analysis*, Information & Management, 43, pp. 127-141.

부록

[부표 1-1]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동구

(단위 : %)

구분	합계	미혼	기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체	100.0(50.8)	43.4(40.8)	5.8(39.3)	36.2(82.9)	14.6(45.7)
20세 미만	100.0(49.9)	100.0(49.9)	0.0(0.0)	0.0(0.0)	0.0(0.0)
20대	100.0(44.6)	99.7(44.6)	0.2(33.3)	0.0(0.0)	0.1(62.5)
30대	100.0(29.8)	78.8(27.4)	12.3(37.2)	0.0(0.0)	8.9(58.3)
40대	100.0(35.1)	48.0(31.3)	14.2(28.8)	4.4(81.5)	33.4(43.4)
50대	100.0(47.8)	9.3(23.4)	16.9(46.8)	26.4(85.5)	47.4(46.4)
60대	100.0(59.9)	5.5(36.3)	8.7(43.4)	63.3(81.8)	22.5(41.4)
70세 이상	100.0(77.6)	2.6(73.1)	1.9(31.8)	88.4(83.0)	7.0(55.0)

주: 1) 값=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연령별 여성전체*100

2) () 안은 '여성비율(여성/전체*100)'

자료: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1인가구 20%표본 집계결과 (2017.06.26. 기준)

[부표 1-2]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중구

(단위 : %)

구분	합계	미혼	기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체	100.0(58.9)	29.5(46.0)	8.4(50.0)	46.0(82.6)	16.1(48.6)
20세 미만	100.0(43.3)	100.0(43.3)	0.0(0.0)	0.0(0.0)	0.0(0.0)
20대	100.0(60.8)	99.1(61.0)	0.6(30.3)	0.0(0.0)	0.3(100.0)
30대	100.0(43.4)	87.0(43.0)	7.3(41.9)	0.0(0.0)	5.7(52.5)
40대	100.0(43.0)	47.4(35.4)	17.7(48.5)	3.7(63.4)	31.2(55.5)
50대	100.0(51.1)	14.6(32.1)	17.7(52.1)	31.7(83.7)	36.0(45.9)
60대	100.0(65.8)	7.3(47.8)	9.5(55.8)	60.2(81.9)	22.9(49.8)
70세 이상	100.0(76.7)	1.1(39.5)	3.0(44.7)	91.0(83.2)	4.9(42.9)

주: 1) 값=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연령별 여성전체*100

2) 괄호 안은 '여성비율(여성/전체*100)'

자료: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1인가구 20%표본 집계결과 (2017.06.26. 기준)

[부표 1-3]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서구

(단위 : %)

구분	합계	미혼	기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체	100.0(55.3)	50.7(50.7)	8.2(39.0)	26.5(79.9)	14.7(54.4)
20세 미만	100.0(48.9)	100.0(48.9)	0.0(0.0)	0.0(0.0)	0.0(0.0)
20대	100.0(56.3)	98.7(56.3)	1.0(59.4)	0.0(0.0)	0.2(48.7)
30대	100.0(46.4)	87.3(46.0)	5.9(38.3)	0.2(31.8)	6.7(65.1)
40대	100.0(42.9)	48.8(42.3)	15.3(28.9)	3.1(71.1)	32.8(54.0)
50대	100.0(53.0)	13.5(45.4)	20.9(40.9)	24.9(79.9)	40.6(53.0)
60대	100.0(66.1)	4.6(51.8)	12.3(51.7)	61.7(78.6)	21.4(53.4)
70세 이상	100.0(76.6)	1.9(73.0)	3.3(40.0)	88.7(81.0)	6.1(59.5)

주: 1) 값=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연령별 여성전체*100

2) 괄호 안은 '여성비율(여성/전체*100)'

자료: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1인가구 20%표본 집계결과 (2017.06.26. 기준)

[부표 1-4]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유성구

(단위 : %)

구분	합계	미혼	기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체	100.0(45.1)	55.3(38.8)	11.2(35.0)	20.7(84.3)	12.8(56.0)
20세 미만	100.0(45.7)	100.0(45.7)	0.0(0.0)	0.0(0.0)	0.0(0.0)
20대	100.0(39.9)	97.9(39.7)	2.1(64.0)	0.0(0.0)	0.0(0.0)
30대	100.0(33.8)	85.3(33.6)	10.5(32.3)	0.0(0.0)	4.2(47.1)
40대	100.0(41.3)	50.7(41.0)	18.1(27.8)	2.6(65.9)	28.6(57.5)
50대	100.0(48.2)	13.4(42.2)	30.2(33.9)	20.5(83.0)	35.9(57.7)
60대	100.0(63.9)	7.2(70.6)	16.7(42.4)	49.2(86.5)	26.9(53.8)
70세 이상	100.0(80.1)	2.6(89.9)	5.7(51.3)	86.4(84.6)	5.3(60.9)

주: 1) 값=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연령별 여성전체*100

2) 괄호 안은 '여성비율(여성/전체*100)'

자료: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1인가구 20%표본 집계결과 (2017.06.26. 기준)

[부표 1-5]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대덕구

(단위 : %)

구분	합계	미혼	기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체	100.0(50.7)	31.3(35.2)	8.8(41.4)	42.2(80.8)	17.7(50.9)
20세 미만	100.0(42.7)	100.0(42.7)	0.0(0.0)	0.0(0.0)	0.0(0.0)
20대	100.0(43.1)	98.9(43.0)	0.8(50.0)	0.0(0.0)	0.3(100.0)
30대	100.0(33.3)	78.8(30.6)	12.6(44.6)	1.4(70.6)	7.2(57.5)
40대	100.0(35.8)	41.3(25.4)	16.4(39.4)	4.1(81.4)	38.2(54.7)
50대	100.0(46.6)	10.6(24.3)	18.1(36.4)	31.6(74.9)	39.7(50.1)
60대	100.0(65.3)	5.8(55.7)	9.7(48.6)	60.8(81.2)	23.6(49.4)
70세 이상	100.0(77.2)	0.9(53.2)	2.9(50.9)	91.3(82.0)	4.9(45.6)

주: 1) 값=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연령별 여성전체*100

2) 괄호 안은 '여성비율(여성/전체*100)'

자료: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1인가구 20%표본 집계결과 (2017.06.26. 기준)

[부표 1-6]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 동구

(단위 : 가구, %)

구분	0-19	20-29	30-39	40-49	50-59	60-
대전시	2,281	19,964	11,302	9,679	12,158	26,810
동구	1,091	4,462	1,196	1,365	2,312	6,168
자양동	521	1,411	87	93	110	249
용운동	265	1,230	104	112	202	389
효동	6	80	123	111	195	421
가양2동	174	558	96	118	189	443
용전동	14	393	276	235	278	424
산내동	-	36	44	55	109	399
신인동	-	19	41	47	94	327
홍도동	14	217	59	101	132	309
대동	10	92	63	56	94	300
가양1동	87	268	69	82	143	378
성남동	-	46	47	74	154	381
삼성동	-	32	50	88	132	430
판암1동	-	22	27	50	110	431
판암2동	-	38	51	101	263	870
중앙동	-	20	24	42	91	313
대청동	-	-	5	-	16	104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15 인구주택총조사)

[부표 1-7]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 중구

(단위 : 가구, %)

구분	0-19	20-29	30-39	40-49	50-59	60-
중구	47	1,791	1,409	1,457	2,214	5,951
목동	16	139	59	66	60	161
태평1동	-	36	31	53	69	230
문화1동	-	176	84	86	111	339
태평2동	-	37	61	92	142	478
은행선화동	9	371	256	218	243	447
산성동	-	66	103	147	285	644
대흥동	10	284	191	97	125	336
용두동	12	209	83	82	103	304
중촌동	-	55	93	106	180	569
유천2동	-	63	58	80	132	345
문화2동	-	41	86	106	169	451
오류동	-	89	75	56	69	263
석교동	-	39	51	80	162	500
유천1동	-	28	42	59	99	191
부사동	-	25	40	36	95	242
대사동	-	117	74	48	86	238
문창동	-	16	22	45	84	213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15 인구주택총조사)

[부표 1-8]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 서구

(단위 : 가구, %)

구분	0-19	20-29	30-39	40-49	50-59	60-
서구	522	7,342	4,695	3,521	3,755	7,357
가수원동	34	234	168	187	186	331
관저2동	33	383	136	159	164	312
관저1동	23	258	79	80	85	198
둔산2동	12	413	384	258	184	244
복수동	94	475	83	93	126	235
갈마2동	25	776	618	323	263	291
만년동	7	143	174	143	99	115
괴정동	25	614	481	253	198	334
월평3동	-	34	51	60	86	187
탄방동	21	789	696	399	342	422
둔산1동	-	89	102	53	57	129
내동	7	92	92	112	155	352
갈마1동	20	501	342	245	225	325
월평1동	14	368	303	228	209	184
가장동	-	81	97	63	78	232
도마2동	88	618	84	95	184	435
정림동	-	51	50	70	111	320
둔산3동	-	84	78	120	160	490
용문동	13	454	363	192	182	362
변동	6	114	131	123	182	349
도마1동	95	707	85	106	197	483
월평2동	5	56	98	144	263	851
기성동	-	8	-	15	19	176
합계	522	7,342	4,695	3,521	3,755	7,357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15 인구주택총조사)

[부표 1-9]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 유성구

(단위 : 가구, %)

구분	0-19	20-29	30-39	40-49	50-59	60-
유성구	302	4,786	3,072	2,165	2,091	3,380
관평동	8	213	141	90	68	109
신성동	-	279	226	124	102	164
노은3동	13	138	232	185	199	242
원신흥동	26	184	451	355	324	382
노은1동	11	183	235	169	118	185
온천2동	153	1,965	451	234	274	391
노은2동	12	131	135	125	145	236
전민동	5	239	169	93	113	188
구죽동	5	143	136	169	151	485
진잠동	21	171	213	243	264	497
온천1동	48	1,140	683	378	333	501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15 인구주택총조사)

[부표 1-10]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현황 : 대덕구

(단위 : 가구, %)

구분	0-19	20-29	30-39	40-49	50-59	60-
대덕구	319	1,583	930	1,171	1,786	3,954
중리동	22	186	190	241	311	426
법1동	-	34	64	111	206	602
법2동	-	43	45	87	204	558
오정동	270	900	113	124	168	343
송촌동	9	60	69	130	166	295
비래동	5	47	78	85	155	313
회덕동	-	33	46	73	133	431
덕암동	7	67	82	69	116	268
신탄진동	6	65	67	78	108	288
대화동	-	51	85	71	81	204
석봉동	-	39	45	57	74	157
목상동	-	58	46	45	64	69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부표 1-11] 대전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평균연령과 연령대별 여성인구 현황(1)

(단위 : 명, %)

행정동 (1인가구 비율)	여성 평균연령 (세)	연령대	전체 여성인구	전체 인구 중 여성비율
자양동 (66.5)	37.6	~ 19	1,452	43.4
		20 ~ 29	2,151	41.7
		30 ~ 39	579	41.9
		40 ~ 49	692	46.5
		50 ~ 59	959	51.6
		60 ~ 69	657	50.8
		70 ~	629	56.3
온천2동 (52.1)	35.4	~ 19	4,377	44.7
		20 ~ 29	6,201	36.3
		30 ~ 39	2,548	44.1
		40 ~ 49	2,594	47.1
		50 ~ 59	2,853	48.4
		60 ~ 69	1,291	46.5
		70 ~	1,174	57.2
월평1동 (50.8)	40.2	~ 19	832	49.5
		20 ~ 29	1,080	46.8
		30 ~ 39	929	43.8
		40 ~ 49	1,009	49.6
		50 ~ 59	1,045	51.0
		60 ~ 69	488	48.8
		70 ~	361	59.2
온천1동 (50.1)	40.0	~ 19	2,063	47.5
		20 ~ 29	3,393	46.3
		30 ~ 39	2,311	44.2
		40 ~ 49	1,981	47.5
		50 ~ 59	2,430	49.8
		60 ~ 69	1,184	49.5
		70 ~	1,260	60.8

[부표 1-12] 대전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평균연령과 연령대별 여성인구 현황(2)

(단위 : 명, %)

행정동 (1인가구 비율)	여성 평균연령 (세)	연령대	전체 여성인구	전체 인구 중 여성비율
오정동 (50.1)	39.9	~ 19	1,767	49.3
		20 ~ 29	2,244	44.6
		30 ~ 39	949	42.9
		40 ~ 49	1,154	44.3
		50 ~ 59	1,684	48.8
		60 ~ 69	1,074	50.6
		70 ~	773	55.2
용운동 (50.0)	38.1	~ 19	2,438	47.3
		20 ~ 29	2,675	41.2
		30 ~ 39	1,293	47.5
		40 ~ 49	1,641	49.1
		50 ~ 59	1,785	50.6
		60 ~ 69	1,006	50.0
		70 ~	912	58.7

주: 1) 행정동 기준

2) 여성비율=여성/전체*100

3) 1인가구 비중=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부표 1-13]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1)

(단위 : 명, %)

행정동	전체		여성		남성	
	가구수	비율 ¹⁾	가구수	비율 ²⁾	가구수	비율 ³⁾
자양동	5,830	66.5	2,471	28.2	3,362	38.3
온천2동	9,532	52.1	3,468	18.9	6,063	33.1
월평1동	3,053	50.8	1,306	21.7	1,747	29.1
온천1동	7,371	50.1	3,083	21.0	4,287	29.1
오정동	4,691	50.1	1,918	20.5	2,773	29.6
용운동	5,652	50.0	2,302	20.4	3,351	29.7
판암2동	2,312	44.7	1,326	25.7	985	19.1
은행선화동	3,468	44.1	1,544	19.6	1,924	24.5
중앙동	1,158	43.9	492	18.6	667	25.3
도마1동	3,771	43.4	1,673	19.2	2,103	24.2
괴정동	3,653	40.5	1,905	21.1	1,748	19.4
용문동	2,790	39.8	1,566	22.4	1,224	17.5
갈마2동	4,518	38.9	2,296	19.8	2,233	19.2
탄방동	4,862	38.8	2,669	21.3	2,193	17.5
용전동	3,479	38.6	1,620	18.0	1,860	20.6
대사동	1,034	38.1	564	20.8	470	17.3
도마2동	3,440	37.0	1,504	16.2	1,931	20.7
갈마1동	3,592	36.4	1,658	16.8	1,923	19.5
대흥동	2,067	35.9	1,043	18.1	1,025	17.8
문창동	765	35.1	381	17.5	383	17.6
용두동	1,503	34.9	793	18.4	710	16.5
가양1동	2,207	34.7	1,027	16.1	1,177	18.5

주: 행정동 기준

- 1) 1인가구/일반가구*100
- 2) 여성1인가구/일반가구*100
- 3) 남성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부표 1-14]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2)

(단위 : 명, %)

행정동	전체		여성		남성	
	가구수	비율 ¹⁾	가구수	비율 ²⁾	가구수	비율 ³⁾
중리동	3,114	34.0	1,376	15.0	1,738	19.0
홍도동	1,731	33.3	862	16.6	869	16.7
월평2동	2,347	33.3	1,417	20.1	930	13.2
유천1동	903	32.9	419	15.3	484	17.7
가양2동	2,929	32.8	1,578	17.7	1,350	15.1
목상동	922	31.8	283	9.8	635	21.9
대화동	1,029	30.3	493	14.5	536	15.8
범1동	1,600	29.3	1,020	18.7	580	10.6
부사동	844	29.0	440	15.1	404	13.9
중촌동	1,694	28.6	1,006	17.0	688	11.6
만년동	1,489	27.8	681	12.7	808	15.1
변동	1,867	27.2	905	13.2	962	14.0
관암1동	1,065	27.0	641	16.2	425	10.8
기성동	366	26.5	226	16.4	140	10.1
신성동	2,465	26.5	898	9.7	1,566	16.8
삼성동	1,668	26.1	735	11.5	933	14.6
복수동	2,155	26.0	1,106	13.3	1,049	12.7
신탄진동	1,249	26.0	612	12.7	637	13.3
문화2동	1,433	25.8	855	15.4	578	10.4
성남동	1,293	25.4	704	13.8	589	11.6
덕암동	1,475	24.7	609	10.2	870	14.5
진잠동	3,042	24.6	1,409	11.4	1,632	13.2
오류동	937	24.3	555	14.4	382	9.9

주: 행정동 기준

- 1) 1인가구/일반가구*100
- 2) 여성1인가구/일반가구*100
- 3) 남성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부표 1-15]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3)

(단위 : 명, %)

행정동	전체		여성		남성	
	가구수	비율 ¹⁾	가구수	비율 ²⁾	가구수	비율 ³⁾
대동	1,134	23.9	615	13.0	518	10.9
석교동	1,590	23.8	836	12.5	754	11.3
구즉동	2,617	23.8	1,089	9.9	1,528	13.9
유천2동	1,263	23.2	681	12.5	582	10.7
노은1동	1,904	23.2	901	11.0	1,004	12.2
전민동	1,968	23.0	807	9.4	1,161	13.6
산성동	2,505	22.8	1,248	11.4	1,257	11.5
대청동	230	22.5	133	13.0	97	9.5
회덕동	1,352	22.5	717	11.9	635	10.6
뽕2동	1,525	22.5	940	13.9	585	8.6
가장동	1,087	22.3	554	11.4	533	10.9
관저1동	1,275	21.7	723	12.3	477	8.1
원신흥동	3,055	21.0	1,722	11.9	1,335	9.2
신인동	974	20.6	529	11.2	445	9.4
비래동	1,298	20.0	683	10.5	616	9.5
둔산3동	1,486	19.8	935	12.5	551	7.3
둔산2동	2,609	19.4	1,495	11.1	1,114	8.3
석봉동	844	19.0	372	8.4	472	10.6
관저2동	2,005	18.7	1,187	11.1	894	8.4
노은2동	1,602	18.6	784	9.1	813	9.4
관평동	1,777	18.4	629	6.5	1,148	11.9
효동	1,720	17.8	936	9.7	783	8.1
노은3동	1,961	17.7	1,009	9.1	957	8.7

주: 행정동 기준

- 1) 1인가구/일반가구*100
- 2) 여성1인가구/일반가구*100
- 3) 남성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부표 1-16]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4)

(단위 : 명, %)

행정동	전체		여성		남성	
	가구수	비율 ¹⁾	가구수	비율 ²⁾	가구수	비율 ³⁾
산내동	1,249	17.5	643	9.0	606	8.5
문화1동	1,457	17.5	797	9.6	660	7.9
가수원동	2,296	17.3	1,140	8.6	1,156	8.7
정림동	1,056	16.9	605	9.7	451	7.2
목동	868	16.7	501	9.6	367	7.0
내동	1,386	16.0	810	9.4	576	6.7
태평1동	778	15.6	422	8.4	356	7.1
송촌동	1,452	14.6	729	7.3	722	7.2
둔산1동	772	14.0	433	7.8	339	6.1
태평2동	1,268	13.4	814	8.6	454	4.8
월평3동	663	8.9	420	5.6	243	3.3

주: 행정동 기준

- 1) 1인가구/일반가구*100
- 2) 여성1인가구/일반가구*100
- 3) 남성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부표 1-17]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 동구

(단위 : 명, %)

행정동	전체		여성		남성	
	가구수	비율 ¹⁾	가구수	비율 ²⁾	가구수	비율 ³⁾
자양동	5,830	66.5	2,471	28.2	3,362	38.3
용운동	5,652	50.0	2,302	20.4	3,351	29.7
관암2동	2,312	44.7	1,326	25.7	985	19.1
중앙동	1,158	43.9	492	18.6	667	25.3
용전동	3,479	38.6	1,620	18.0	1,860	20.6
가양1동	2,207	34.7	1,027	16.1	1,177	18.5
홍도동	1,731	33.3	862	16.6	869	16.7
가양2동	2,929	32.8	1,578	17.7	1,350	15.1
관암1동	1,065	27.0	641	16.2	425	10.8
삼성동	1,668	26.1	735	11.5	933	14.6
성남동	1,293	25.4	704	13.8	589	11.6
대동	1,134	23.9	615	13.0	518	10.9
대처용	230	22.5	133	13.0	97	9.5
신인동	974	20.6	529	11.2	445	9.4
효동	1,720	17.8	936	9.7	783	8.1
산내동	1,249	17.5	643	9.0	606	8.5

주: 행정동 기준

- 1) 1인가구/일반가구*100
- 2) 여성1인가구/일반가구*100
- 3) 남성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부표 1-18]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 중구

(단위 : 명, %)

행정동	전체		여성		남성	
	가구수	비율 ¹⁾	가구수	비율 ²⁾	가구수	비율 ³⁾
은행선화동	3,468	44.1	1,544	19.6	1,924	24.5
대사동	1,034	38.1	564	20.8	470	17.3
대흥동	2,067	35.9	1,043	18.1	1,025	17.8
문창동	765	35.1	381	17.5	383	17.6
용두동	1,503	34.9	793	18.4	710	16.5
유천1동	903	32.9	419	15.3	484	17.7
부사동	844	29.0	440	15.1	404	13.9
중촌동	1,694	28.6	1,006	17.0	688	11.6
문화2동	1,433	25.8	855	15.4	578	10.4
오류동	937	24.3	555	14.4	382	9.9
석교동	1,590	23.8	836	12.5	754	11.3
유천2동	1,263	23.2	681	12.5	582	10.7
산성동	2,505	22.8	1,248	11.4	1,257	11.5
문화1동	1,457	17.5	797	9.6	660	7.9
목동	868	16.7	501	9.6	367	7.0
태평1동	778	15.6	422	8.4	356	7.1
태평2동	1,268	13.4	814	8.6	454	4.8

주: 행정동 기준

1) 1인가구/일반가구*100

2) 여성1인가구/일반가구*100

3) 남성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부표 1-19]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 서구

(단위 : 명, %)

행정동	전체		여성		남성	
	가구수	비율 ¹⁾	가구수	비율 ²⁾	가구수	비율 ³⁾
월평1동	3,053	50.8	1,306	21.7	1,747	29.1
도마1동	3,771	43.4	1,673	19.2	2,103	24.2
괴정동	3,653	40.5	1,905	21.1	1,748	19.4
용문동	2,790	39.8	1,566	22.4	1,224	17.5
갈마2동	4,518	38.9	2,296	19.8	2,233	19.2
탄방동	4,862	38.8	2,669	21.3	2,193	17.5
도마2동	3,440	37.0	1,504	16.2	1,931	20.7
가마1동	3,592	36.4	1,658	16.8	1,923	19.5
월평2동	2,347	33.3	1,417	20.1	930	13.2
만년동	1,489	27.8	681	12.7	808	15.1
변동	1,867	27.2	905	13.2	962	14.0
기성동	366	26.5	226	16.4	140	10.1
복수동	2,155	26.0	1,106	13.3	1,049	12.7
가장동	1,087	22.3	554	11.4	533	10.9
관저1동	1,275	21.7	723	12.3	477	8.1
둔산3동	1,486	19.8	935	12.5	551	7.3
둔산2동	2,609	19.4	1,495	11.1	1,114	8.3
관저2동	2,005	18.7	1,187	11.1	894	8.4
가수원동	2,296	17.3	1,140	8.6	1,156	8.7
정림동	1,056	16.9	605	9.7	451	7.2
내동	1,386	16.0	810	9.4	576	6.7
둔산1동	772	14.0	433	7.8	339	6.1
월평3동	663	8.9	420	5.6	243	3.3

주: 행정동 기준

- 1) 1인가구/일반가구*100
- 2) 여성1인가구/일반가구*100
- 3) 남성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부표 1-20]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 유성구

(단위 : 명, %)

행정동	전체		여성		남성	
	가구수	비율 ¹⁾	가구수	비율 ²⁾	가구수	비율 ³⁾
온천2동	9,532	52.1	3,468	18.9	6,063	33.1
온천1동	7,371	50.1	3,083	21.0	4,287	29.1
신성동	2,465	26.5	898	9.7	1,566	16.8
진잠동	3,042	24.6	1,409	11.4	1,632	13.2
구죽동	2,617	23.8	1,089	9.9	1,528	13.9
노은1동	1,904	23.2	901	11.0	1,004	12.2
전민동	1,968	23.0	807	9.4	1,161	13.6
원신흥동	3,055	21.0	1,722	11.9	1,335	9.2
노은2동	1,602	18.6	784	9.1	813	9.4
관평동	1,777	18.4	629	6.5	1,148	11.9
노은3동	1,961	17.7	1,009	9.1	957	8.7

주: 행정동 기준

- 1) 1인가구/일반가구*100
- 2) 여성1인가구/일반가구*100
- 3) 남성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부표 1-21] 대전지역 성별 1인가구: 대덕구

(단위 : 명, %)

행정동	전체		여성		남성	
	가구수	비율 ¹⁾	가구수	비율 ²⁾	가구수	비율 ³⁾
오정동	4,691	50.1	1,918	20.5	2,773	29.6
중리동	3,114	34.0	1,376	15.0	1,738	19.0
목상동	922	31.8	283	9.8	635	21.9
대화동	1,029	30.3	493	14.5	536	15.8
법1동	1,600	29.3	1,020	18.7	580	10.6
신탄진동	1,249	26.0	612	12.7	637	13.3
덕암동	1,475	24.7	609	10.2	870	14.5
회덕동	1,352	22.5	717	11.9	635	10.6
법2동	1,525	22.5	940	13.9	585	8.6
비래동	1,298	20.0	683	10.5	616	9.5
석봉동	844	19.0	372	8.4	472	10.6
송촌동	1,452	14.6	729	7.3	722	7.2

주: 행정동 기준

1) 1인가구/일반가구*100

2) 여성1인가구/일반가구*100

3) 남성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10.24. 기준)

[부표 1-22] 성별 · 주택점유형태별 1인가구 분포

(단위 : %)

구분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52.1	50.8	58.9	55.3	45.1	49.3
자가	66.5	50.8	69.7	66.2	58.3	32.9
전세	51.7	49.6	61.0	55.2	43.4	48.5
월세 (보증금 있음)	48.2	45.8	53.6	52.5	43.6	55.7
월세 (보증금 없음)	35.7	58.9	36.6	45.7	31.4	75.2
사글세	40.5	42.2	41.9	39.2	29.4	55.3
무상 (관사, 사택 등)	41.5	48.0	43.9	43.7	36.3	61.5

주: 값(여성비율)=여성/전체*100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1인가구 20%표본 집계결과 (2017.06.26. 기준)